

체육균형발전지수(KSBI : KSPO Sport Balanced-development Index) 개발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

2016. 12.

책임연구자 : 송명규 (한국 스포츠 개발 원)

공동연구자 : 남상우 (한국 스포츠 개발 원)

최용석 (한국 스포츠 개발 원)

김상훈 (한국 스포츠 개발 원)

자문위원 : 이홍복 (공 단 기 획 조 정 실 장)

차차남 (공 단 기 금 지 원 실 장)

발 간 사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체육 발전의 학술적 토대와 현장 활용성 극대화를 목표로 쉬 없이 달려온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땀과 열정의 산물인 연구결과보고서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본원의 연구진은 헌신적 노력으로 29건의 기본연구와 60건의 수탁연구를 마치고 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성과물이 체육정책 선도 분야에서, 경기력향상 밀착지원 및 특화 분야에서, 스포츠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견인하려는 분야에서, 또한 스포츠와 공학의 융합분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6년은 스포츠과학 연구와 현장적용의 시금석인 올림픽 해였습니다. 남미 최초의 리우올림픽·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원의 연구진은 새로운 과학적 접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수행력 제고에 필요한 훈련방법과 효과를 검증하고, 영상 및 텍스트를 망라한 집합 자료와 개인별 자료의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적용을 가능케 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스포츠과학 허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역스포츠과학거점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측정과 평가기준을 세워나가는 연구도 수행되어 현장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한국성인 및 노인의 건강체력 기준제시 연구는 다분야 협력적 연구로서 노인의 건강위험 요인을 운동을 통해서 해소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연구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체육정책의 외부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통합체육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해로서 변화를 이끌 쟁점을 다룬 정책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체육시스템이 갖는 구태와 비효율과 절연하고 스포츠선진국 구현에 부응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

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발전의 방향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그중에서도 시급한 일부 과제를 다뤘습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대회의 통합 방안이나 심판제도 선진화 연구 등이 그것입니다. 동시에 미흡한 법제 정비를 위한 연구도 추진되었습니다. 한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구사회 환경이 스포츠시스템에 미칠 변화를 예측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역시 중요한 적응조건으로 전제하여 미래 체육발전의 도전요인을 다룰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본원에서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산출하고 현장변화를 이끌어낼 아이디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선도 연구를 수행해내기도 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기술혁명의 영향력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서 체육관련 연구의 주제나 범위는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외적 환경은 개인 연구자의 노력 한계를 넘어서는 다전공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본원은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연구를 지향하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독자적인 연구 성과물들을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현장과 소통하고, 경기현장의 문제를 공유하며,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올해 이뤄진 89건의 연구과제가 나오기 까지는 외부 공동연구자 및 자문위원, 보조연구원의 노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묵묵히 연구행정을 뒷받침해준 직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국스포츠개발원은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의 싱크탱크로서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원장 박 영 옥

초 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고 칭함) 경영목표의 핵심은 스포츠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개념이다. 공단의 비전과 미션에서도 스포츠복지 증진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공단은 비전과 미션달성, 궁극적으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재원으로 국민의 스포츠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년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지원액은 11,605억원으로 국고 1,342억원 대비 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체육기금 지원 중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생활체육참여율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생활체육참여율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세부적으로는 연령, 성별, 소득 등)로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목표가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의 추진배경에는 지역 간의 형평성이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체계의 하나라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

또한 기금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 수립된 정책목표와 실제 달성정도와의 차이가 큰 지역을 찾아내어 어떤 유형의 기금지원(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저소득층 참여 제고를 위한 바우처 지원 등)이 효과적인지, 기금지원의 지역별·유형별 우선순위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체육활동 환경과 체육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단일수치로 표현하는 체육균형발전지수(KSBI : KSPO Sport Balanced-developed Index)를 산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영역별 장단점을 고려하고, 증가하고 있는 기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지원사업의 지역별·유형별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한정적인 기금재원의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기금지원사업의 경영목표로 설정된 '기금지원사업 내실화가 비전 및 미션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전략목표와의 부합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개선 및 대체할 경영성과 지표로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2015년 기준 16개 시도별 측정된 투입지표를 기초로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한 결과 가중치 적용 전 투입요인별 시도별 균형발전 정도는 지도자배치 55.0, 바우처지원비율 48.8, 국민체력인증 41.1, 시설면적 3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배치 사업과 공단의 직접사업 중 바우처 지원이 지역별 불균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균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획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도자배치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시설면적, 바우처지원사업, 국민체력인증사업 등 모든 사업영역에서 균형 발전 정도가 50점 아래로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체육균형발전지수(KSBI)는 48.23으로 OECD 국가별 행복지수 58.35(5.835), 58위(157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상위 10개국의 평균이 74.13(7.413)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측정지표, 방법, 대상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세계행복지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삶의 질과 관련된 결과는, 전체 삶의 질(행복도) 평균은 73.63점이며, 체육활동 참여가 삶의 질(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4.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육활동을 통해 얻는 행복도는 대략 31.26점으로 분석된다. 삶의 질(행복도)이 제일 높은 곳은 제주도로 81.30점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경북(79.10점), 광주(78.40점), 충북(78.30점), 강원(76.80점) 순이었다. 반면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 67.60점, 부산 67.00점, 경기 66.40점 순으로 하위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행복도)은 충북이 54.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 51.46점, 대구 48.59점, 강원 48.58점, 부산 47.91점 순이었다. 전체 삶의 질(행복도)과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행복도 차이가 큰 시도는 부산(삶의 질 15위, 체육활동행복도 5위), 대구(삶의 질 9위, 체육활동행복도 3위), 광주(삶의 질 3위, 체육활동행복도 13위), 경북(삶의 질 2위, 체육활동행복도 10위), 제주(삶의 질 1위, 체육활동행복도 8위)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 및 체육활동 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단순히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인프라 성격의 요인들만 가지고는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의 지역, 대상, 규모, 유형 등을 기초로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금지원사업 의사결정을 위해서 지역별, 사업유형별 불균형 정도 및 정책목표 달성 여부, 궁극적으로 삶의 질(행복도) 증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지원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실행여부와 결과 및 성과를 환류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체육 발전 정도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강·약점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강점을 특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체계적인 생활체육 진흥 기금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진흥 관련 사업 실행 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대적 열위지역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각종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에 분야별로 체육균형발전지수와 같은 다양한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산하기관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부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육균형발전지수가 지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실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육균형발전지수 생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체육균형발전지수가 정책수립 및 실행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7
II. 이론적 고찰	10
1. 선행연구	10
가. 균형발전 관련 연구	10
나. 지수 관련 연구	12
2. 체육균형발전의 개념 및 정책적 함의	17
가. 국가균형발전의 개념	17
나. 삶의 질 및 행복의 개념	22
III. 체육균형발전지수 개발	35
1. 체육균형발전지수 체계 및 균형발전(불균형) 측정	35
가. 체육균형발전지수 체계	35
나. 지역 균형발전(불균형) 측정	37

2. 체육균형발전지수 투입지표 산출	39
가. 설문조사	40
나. 측정지표별 가중치 결정	69
다. 체육균형발전지수 산출	89
라. 시사점 및 활용방안	91
IV. 결론 및 제언	93
1. 결론	93
2. 제언	96
가. 주기적·지속적인 지표조사 체계 구축	97
나. 기준년도 대비 증감률의 반영	98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 체계 확립	98
라. 체육균형발전지수 자문위원회 구축 및 운영	99
참고문헌	100
부 록	102
〈부록 1〉 문체부 기금지원사업(국민체육센터 건립) 세부 평가항목	102

표 목 차

〈표 I-1〉 연도별 기금지원 현황	2
〈표 II-1〉 국가별 삶의 질 연구 측정지표	23
〈표 III-1〉 전국의 20세 이상 지역별·성별·연령대별 인구수	41
〈표 III-2〉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표본수	42
〈표 III-3〉 주요 조사내용	43
〈표 III-4〉 응답자의 특성요약	44
〈표 III-5〉 운동종목(복수응답)	47
〈표 III-6〉 응답자 특성별 운동횟수	55
〈표 III-7〉 응답자 특성별 운동종목(복수응답)	57
〈표 III-8〉 응답자 특성별 주로 운동하는 장소	60
〈표 III-9〉 응답자 특성별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즐거움’	62
〈표 III-10〉 응답자 특성별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자신감’	64
〈표 III-11〉 응답자 특성별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행복지수’	65
〈표 III-12〉 응답자 특성별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행복 기여도	67
〈표 III-13〉 중요도의 크기에 대한 응답 척도	71
〈표 III-14〉 체육균형발전지수 제안체계, 지표군 및 측정방법	74
〈표 III-15〉 시도별 삶의 질(행복도) 및 체육활동 행복도	76

〈표 Ⅲ-16〉 삶의 질(행복도)과 체육활동행복도, 기금지원사업 간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	78
〈표 Ⅲ-17〉 시도별 시설확충(1인당 시설면적) 현황	80
〈표 Ⅲ-18〉 시도별 바우처 지원 현황	83
〈표 Ⅲ-19〉 시도별 지도자 배치 현황	84
〈표 Ⅲ-20〉 시도별 국민체력인증 현황	86
〈표 Ⅲ-21〉 시도별 투입지표별 순위	87
〈표 Ⅲ-22〉 소득별 여가시간	88
〈표 Ⅲ-23〉 소득별 생활체육참여 실태	88
〈표 Ⅲ-24〉 소득별 저비용 스포츠 활동과 고비용 스포츠 활동 비교 ...	89
〈표 Ⅲ-25〉 체육균형발전지수(KSBI)	90

그림 목 차

〈그림 Ⅱ-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1
〈그림 Ⅲ-1〉 체육균형발전 측정·평가를 위한 모형 개발 체계	35
〈그림 Ⅲ-2〉 로렌츠 곡선	3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고 칭함) 경영목표의 핵심은 스포츠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개념이다. 공단의 비전과 미션에서도 스포츠복지 증진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스포츠복지가 무엇이며, 그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스포츠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다. 다만, 스포츠복지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스포츠 활동을 보장·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대를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의 최종목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을 인간다운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 차원에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스포츠복지의 정책방향으로 삼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공단은 상기와 같은 비전과 미션달성, 궁극적으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재원으로 국민의 스포츠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년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지원액은 11,605억원으로 국고 1,342억원 대비 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표 I -1> 연도별 기금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활체육	1,951	2,228	2,814	2,089	3,305
전문체육	1,587	1,237	1,322	2,072	3,262
국제체육	2,761	3,424	4,199	4,161	4,511
장애인체육	269	362	464	629	527
계	6,565	7,251	8,799	8,951	11,605

공단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의 다양한 기금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생활참여율 56%(15년), 올림픽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Top 10 유지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기금지원사업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치는 기금지원사업의 전체적·종합적인 관점에서 목표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지역단위별, 사업유형별[예를 들면, 생활체육의 경우 생활체육여건조성사업(각종 시설건립 등 인프라조성사업)과 생활체육활성화사업(생활체육프로그램, 국제교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로 비교·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기금지원사업이 지역을 기초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간·사업유형간 비교분석을 통해 각 지역별 장단점 또는 강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지역별 특성과 발전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기금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 지역별 기금지원사업이 차별성이 없는 이유 역시 지역별로 어떤 영역에 장점을 지니고 있고, 단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목표로서 ‘국민 도시경쟁력과 행복결정요인에 따른 지역발전방안 행복시대’를 열어갈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이 중심이 되는 ‘지역희망 프로젝트’ 발표를 통한 지역행복 강조(2013. 7. 18)하고 있는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은 현 정부 정책의 중요한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생활체육 지원은 생활체육참여율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세부적으로는 연령, 성별, 소득 등)로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목표가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의 추진배경에는 지역 간의 형평성이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체계의 하나라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

또한 기금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 수립된 정책목표(수준)와 현재 달성정도(수준)와의 차이(gap)가 큰 지역을 찾아내어 어떤 유형의 기금지원(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저소득층 참여 제고를 위한 바우처 지원 등)이 효과적인지, 기금지원의 지역별·유형별 우선순위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체육활동 환경과 체육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단일수치로 표현하는 체육균형발전지수(KSBI : KSPO Sport Balanced -developed Index)를 산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영역별 장단점을 고려하고, 증가하고 있는 기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지원 사업의 지역별·유형별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한정적인 기금재원의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체육균형발전지수는 또한 지역별 체육활동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기금지원사업의 경영목표로 설정된 ‘기금

지원사업 내실화'가 비전 및 미션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전략목표와의 부합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를 개선 및 대체할 경영성과 지표로의 타당성도 검증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체육활동 환경과 체육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단일수치로 표현하는 체육균형발전지수(KSBI)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체육균형발전지수(KSBI)는 학문적 연구나 과학적 경험으로 정리된 사회적 용어가 아니라 지역별 체육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편의상 붙여진 실천적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시설확충, 스포츠강좌이용권, 지도자배치, 국민체력인증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체육균형발전지수는 지역별·유형별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며,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산출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프로구단의 상대적인 전력 차이를 파악하고, 상대적인 전력 불평등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단별 차등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게임을 즐겁고 박진감 넘치게 만듦으로써 프로스포츠를 성장·발전시키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첫째, 체육균형발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체육균형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경영목표 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체육균형발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사업적 측면에서 논의 및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업별 성과를 분석할 것이다. 체육균형발전지수의 산출대상이 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진흥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각 사업별 성과를 검토 및 분석함으로써 체육균형발전지수 산출을 위해 고려할 변인과 가중치 결정 등 방법 등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공단의 기재부 경영성과평가에 대비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을 정교화·일반화하는 학술적 목적의 연구가 아닌 특정한 목적을 갖는 연구로서 연구의 범위나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핵심적으로 기재부 경영성과 평가지표 및 기준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셋째, 체육균형발전지수 측정 및 평가모형 개발이다. 기본적으로는 소득불평 등 정도를 측정·평가하는 지니계수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지니계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용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넷째, 체육균형발전지수 산출을 위한 변수(요인) 선정 및 변수(요인)별 가중치 추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생활체육 기금지원사업 중 직·간접적으로 공단이 통제할 수 있어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의 핵심성과지표를 투입해서 지수화 한다. 이는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영성과 평가지표를 외생변수로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수(요인)별 가중치를 어떤 방식, 예를 들면, 예산지원 비중, 생활체육의 최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체육균형발전지수는 공단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로서 활용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은 투입과 과정 및 산출, 결과와 성과 등이 추적 가능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직접사업을 중심으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금지원의 궁극적인 정책목적은 생활체육의 경우,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체력증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목적 또는 목표는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직접사업에 의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간접사업에 대한 투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삶의 질)을 지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는 공단의 미션과 비전이 “국민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증대”이기 때문에 경영목표는 이러한 미션과 비전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전략과제는 경영목표, 아울러 미션과 비전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질적 목표가 행복(삶의 질)이기 때문에 지표로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지역(16개시도)별 정책목표와 달성수준과의 갭(gap) 분석과 유형별 및 종합적인 체육균형발전지수 산출이다.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에서 기초지자체(시 77개, 군 88개, 구 69개 총 234개)를 분석단위로 하여 불균형(또는 균형발전)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① 인구수나 1인당 소득 등을 기초로 규모를 통제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심한 시군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비교가능성 감소와 결과 왜곡 가능성이 높다. ② 불균형 또는 균형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 및 자료와 관련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추출 및 수집 가능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③ 다만, 기초자치단

체에 대한 지원결정은 일단 광역을 기초로 불균형(또는 균형발전) 기준에 따른 지원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시 해당 광역 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시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여 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단위가 광역이나 또는 기초냐의 차이만 있을 뿐 본 연구의 분석방법이나 과정, 결과해석 등에 있어서 동일하며, 상대적으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비교로 합목적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산출된 지수의 결과분석 및 평가,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제언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이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1)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 지역균형발전지수, 문화향유지수, 정보격차지수 등 관련된 자료 및 연구문헌 분석
- 사회지표 및 관련 부문지표의 체계화 연구자료 고찰
-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실태 및 사업성과 분석

2) 전문가 자문

- 지수 관련 전문가 자문
- 체육균형발전지수 개발 모형에 관한 협의
- 부문 및 영역별 가중치 결정(AHP 활용)
- 개발된 체육균형발전지수 체계에 대한 검토

- 체육균형발전지수의 정의산식 및 분류 비교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 설문조사 결과 논의

3) 설문조사

- 지역별 생활체육참여에 대한 만족도, 삶의 질, 행복감 등 질적 성과지표 조사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모집단 :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국민
 - 표본추출 : 지역별 계급군 비례할당(1차 층화), 성별·연령별 비례할당(2차 층화)
 - 조사규모 : 약 1,000명
 - 리서치 업체 위탁(전화 설문조사 중심)
- 설문 내용은 추후 공동연진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결정(생활체육참여 정도, 삶의 만족도·행복감, 건강만족도, 체육활동의 가치 등등)

4) 체육균형지수개발

- 기본적으로는 지니계수 산출방식을 활용하되,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최적화 실시
- 자료 표준화
 - 자료의 특성과 체육도시지수의 목적에 맞게 측정단위를 일치시키고 자료를 표준화
 - 시도별 인구1인 또는 10,000명 당 기준으로 표준화
-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지역별·유형별 불균형)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Y축에 16개 시도를 X축에 생활체육의 정책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변인인 시설인프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도자, 국민체력인증 등의 누적백분율을 취하여 로렌츠 곡선을 그리고 정책목표 수준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대각선(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인 불평등(또는 균형발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체육의 균형발전 정도를 측정 및 평가

- 체육균형발전지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균형이 높다는 것을 의미. 일반적으로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평가

- 체육균형발전지수(KSBI) = $(1 - \text{지니계수}) \times 100$

$$= 1 - \{[\text{사업별 시도별 측정값} \times \text{생활체육참여율 목표대비 달성도} \times \text{체육활동참여행복도}] \times 100\} \times \text{사업별 가중치}$$

단, 생활체육참여율 목표 대비 달성도 : 각 시도별 생활체육참여율 / 정부 생활체육참여율 목표

체육활동참여 행복도 : 각 시도별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행복도) 점수 / 생활체육을 통한 삶의 질(행복도) 목표

* 성과의 하향평준화 등 정책지표 성과달성 기여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 달성도(지역참여율/목표) 가중치로 반영하며, 목표로서의 직관성 확보를 위해 100점 척도 및 상향지표로 환산

* OECD 연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은 상관관계가 매우 크고, 소득불평등 지니계수가 0.03포인트 악화되면 경제성장률도 0.35% 저하된다고 보고

- 체육균형발전지수가 실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우선순위 결정 및 궁극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기여도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일반적인 지수개발과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균형발전 관련 연구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 속에 전개된 각국의 발전의 격차 문제, 즉 전반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 여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현상은 학제적으로 경제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촉진시켰다.

전통적 지역발전이론 중 신고전파 경제학을 배경으로 전개된 신고전적 지역성장이론은 공간적인 부분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한계생산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생산요소(자본, 숙련노동력, 기술)가 이동함으로써 각 지역간 생산력의 불균형 및 성장격차가 축소되어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이 달성된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신고전 지역성장이론이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공간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 자본과 노동의 수익률 차이에 따른 생산요소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억지하고 시장을 통한 최적 배분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지역발전정책으로 귀결되었다.

신고전파 지역성장이론이 국가경제의 총량모형을 지역경제의 분석에 쉽게 적용가능하다는 측면과 논리적 간결성과 높은 예측가능성 등 분석틀에서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에 의해 지역간의 산업구조고용-지역간 성장잠재력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자본수익률과 임금 격차의 확대가 발견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모형으로 인식되었다.

신고전 지역성장이론의 균형적 접근방식을 비판하며 제시된 불균형발전이론은 성장지역과 낙후지역과의 분극화는 ‘통제된 불균형’, 즉 공간적으로 특정 성장거점(growth pole)을 확립하고 성장잠재력의 집중화와 확산에 의하여 지역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성장거점이론에 의하면, 성장 초기국면에서 낙후지역에서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광범위하게 분산된 투자사업보다는 보조금제도, 입지유인책, 기반시설투자 등 외부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외향적 발전 수단을 통해 지역내 성장거점을 마련하면 점차 성장이 궤도에 오르면서 성과가 확산되고 공간적 균형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성장거점이론에 따라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미(미국, 캐나다)와 남미(칠레, 브라질, 베네수엘라) 국가 일부가 지역발전계획의 기본 틀로 운용하였으며, 아시아(일본, 태국, 필리핀) 및 유럽(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의 국가들도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채택한 바 있다(국토연구원, 2004).

성장거점이론이 예측한 바와는 달리, 성장지역은 도시-공업 편향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들로부터 필요한 생산요소와 성장잠재력을 흡수하여 지역성장을 가속화하는 반면, 저개발지역은 역류효과의 우세로 성장잠재력이 고갈되고 재화의 교역조건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에 직면하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많이 제시되었다(OECD, 2001).

예컨대, 성장거점에 다른 지역에 입지한 대기업 투자 유치의 경우 주로 하급공장의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하급공장의 노동력의 질적 구성

특성상 점차적으로 단순화·비숙련화 되고, 지역내 창업 가능 인력도 대기업 공장에 흡수되어 다른 부문의 창업 자원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경제의 자생적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 지역발전이론인 신고전적 성장이론과 성장거점이론은 대체로 지역발전을 경제성장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정책은 외생적 발전 수단을 통해 저개발지역에 기업투자를 유치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공간적으로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전통이론 및 전통적 지역발전 정책에 한계점이 노정되고 지역정책과 관련한 최근의 환경변화(지식기반시대의 도래, 세계화와 경쟁격화, 경제통합/FTA 등 신지역주의의 확산)를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성장에 관한 다양한 연구(신 지역발전이론으로 총칭함)가 1980년대 이후 등장하여 논의와 정책적 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이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신지역발전이론의 기반을 제공한 새로운 관점은 Arrow(1962), Romer(1986), Lucas(1988)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개된 신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으로서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에서 발생하는 수확체증현상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촉진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 지수 관련 연구

지수는 크게 개별지수와 가중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별지수는 하나의 품목에 대한 가격이나 수량 등의 변화를 기준시점에 대한 비교시점의 비율로 나타낸 수치를 말하며, 가중지수는 개별지수에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 값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본 연구의 체육도시지수는 가중지수로서 도시별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선행연구의 검토에 있어서도 가중지수이면

서 동시에 경쟁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영향력 있고 국가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국가경쟁력지수이다. 국가경쟁력지수로는 WEF(World Economic Forum : 세계경제포럼)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 IMD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 국제경영개발원)의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WCS), IPS(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 산업정책연구원)의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s(NCR) 등이 있다.

GCI는 인당 GDP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WCS는 국가경쟁력을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국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NCR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GCI는 1970년부터 지수를 개발·발표하고 있는데, ① 기본요인 : 제도 및 인프라, 거시경제 안정성 등, ② 효율성 : 교육 및 훈련, 상품·노동·금융·시장의 효율성 등, ③ 기업환경의 성숙도와 기술혁신 등 세 가지 기본요소를 기초로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은 134개국으로 가장 많지만 평가 항목의 상당부분(70%)을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CS는 198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① 경제성과 : 국내경제, 국제무역, 투자, 고용 등, ② 정부의 효율성 : 재정 및 세제, 거버넌스 체계, 기업 관련 법규 등, ③ 경영효율성 : 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 등, ④ 인프라 : 기초, 과학기술, 환경, 교육 등 네 가지 기본적인 요인들을 기초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55개국이며, 경성자료(hard data)와 설문자료를

약 52:48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NCR은 가장 최근인 1998년부터 지수를 개발·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① 물적요소 : 생산요소 조건, 경영여건, 시장수요 조건 등, ② 인적요소 : 근로자,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등 두 가지 기본요인을 기초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65개국이며, 경성자료(hard data)와 설문자료를 약 50:50으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수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사회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까지도 측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파악 가능하게 하는 척도이다. 총 13개 부문(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에 걸쳐 55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1984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지표가 있다. 이는 우리 교육문제의 정확한 진단, 교육연구개발,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OECD의 교육지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OECD 교육지표는 총 36개국이 참여(회원국 30, 비회원국 6)하고 있으며, 총 28개 지표를 4개 장(Chapter :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교육기회의 접근·참여·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으로 나누어 평가·발표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향유지수, ‘콘텐츠 향유 기반 지표’, ‘콘텐츠 향유 실태 지표’, ‘콘텐츠 향유 참여 지표’, ‘콘텐츠 향유 결과 지표’, ‘콘텐츠 향유 장애 지표’ 등이 있으며, 박물관 관람률 및 문화재 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유산지수, 산업연구원의 지역간 발전격차 분석을 위한 지역발전지수

(지역경제력지수+주민활력지수), 경기개발연구원의 지역발전지수($0.352 \times$ 생활서비스지수+ $0.324 \times$ 지역경제력지수+ $0.130 \times$ 삶의 여유허간지수+ $0.194 \times$ 주민활력지수), 국민안전처의 지역별 안전지수,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격차지수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와 연구의 범위 및 대상에서 유사한 것으로는 교통문화지수와 건강도시지수가 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매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역을 선발하고 있다. 평가영역은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교통약자 및 기타의 5개 영역이며, 총 12개 항목에 대해 조사평가하고 있다.

건강도시지수는 1984년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Healthy Toronto 2000"이라는 워크숍 중 Trevor Hancock에 의해 조직된 "Beyond Health Care"라는 회의에서 시작되어 현재 30개국 이상 약 1,200개 이상의 도시가 건강도시를 수행하고 있다. 건강도시의 평가지표는 크게 건강한 행동양식, 생활양식,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 교육, 고용과 업무환경,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물리적 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9개(서울시 강남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성동구, 부산진구, 충남 금산군, 충남 연기군, 강원도 원주시, 경남 남해군, 창원시) 도시에서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건강한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EU는 결속을 위해 역내 27개 회원국들의 지역사회 가운데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지역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모니터링과 전략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일상적인 개입을 줄이고 있다. 기금의 10%를 집행위원회는 일정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한 지역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2000~2006년 사이 유럽연합 내에서 구조지원기금의 총 지원액은 183,564,000,000유로였다. 유럽연합 소속국가 인구의 1/4 이상이 유럽연합 평균 GDP의 75% 이하 지역에 살고 있다. 지원기준별로 보면 Obj. 1지역에 대한 지원이 127,543,000,000유로에 달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Obj. 3지역에 대한 지원이 24,050,000,000유로에 이르렀다. Obj. 1지역의 경우 지원내용을 보면 인프라에 41%(20% 교통, 13% 환경),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 23%(교육, 학습, 기업가정신), 생산적 환경에 34%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 Objective 1 : 가장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1인당 GDP가 EU 평균 75% 이하, 혹은 직전 3년 동안 EU의 평균치 이하를 기록한 곳. 핀란드와 스웨덴의 인구과소 지역도 여기에 포함
- Objective 2 : 산업,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침체를 겪는 지역. 침체된 농촌과 어촌, 도시 침체 지역은 여기에 해당. 과거의 2번 기준과 5번 기준을 통합
- Objective 3 : 교육, 학습, 고용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EU정책의 효과로 Obj.1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유럽연합 15개 지역 평균 GDP의 63%에서 70% 수준으로 소득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정책의 효과로 분석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그리스는 1989-1999년 사이 GDP성장이 10%를 기록하였고, 포르투갈은 8.5%를 기록하였다. 2000-2006년 사이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6.0%의 GDP성장을 기록했으며, 아일랜드는 1988년 유럽연합 15개 지역 평균의 64%에 불과했으나, 2003년 121%에 이르렀다.

영국은 1997년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잉글랜드에 대한 분권을 위해 구조적, 헌법적 결정한 바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입지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기회와 안전, 번영과 삶의 질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① 공무원의 지역별 배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② 지역선택지원금 제도(RSA,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를 활용하여 저발전지역의 기업유치를 도왔으며, ③ 지역개발기구를 설치하여 산업발전, 투자유치, 도시재개발 등을 도모, ④ 자발적 지역협의체(RSS : Regional Spatial Strategy)를 설립토록 하여 15-20년 시계의 지역 내 주택, 교통, 경제개발, 환경 전략 수립토록 했으며, ⑤ ‘enabling local solutions’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적 필요에 따라 지역적 혁신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분권화를 추진하여 지역적 시장실패 혹은 중앙정부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정책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선택지원금 제도를 잉글랜드 지역에서 사용하여, 기업의 지방 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2. 체육균형발전의 개념 및 정책적 함의

가. 국가균형발전의 개념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¹⁾ 이처럼 최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현황을 지표 또는 지표개발을 통해 측정·계량화하고 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5. 또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총량적인 성장에서 질적 균형 성장으로 전환. 2) 지방의 창의와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 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추진. 4) 지방의 혁신능력과 특성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책을 추진. 5) 종합적 일괄적 국가균형 발전을 추진.

3분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전략(win-win strategy)을 추구함과 동시에 각 지역이 혁신의 주체,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거듭나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번영을 구가하는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경제자료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그 현황을 파악하기 수월한 편인 반면) 국가균형발전은 경제, 사회문화, 주거환경 등 여러 부문의 다양한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연관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요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황과 정도를 손쉽게 이해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현황에 대한 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주가지수(composite stock price index) 또는 물가지수(price index)와 같이 특정 영역에 대한 각종 정보가 요약되고 집약화된, 통합된 지수(composite index)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또는 지역발전의 정도를 측정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지수화(indexation) 작업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개별 지표를 통합하는 보편화된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지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주로 (발전의 정도가 상이한 국가간의 경제적 통합이 진행 중인) 유럽연합의 구조개선기금(structural funds)의 배분과 관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현황을 비교·평가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수 개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 일반이 널리 이해수용하고 정책입안자에게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평가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균형발전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적정 예산배분 등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수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종합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균형발전(balanced development)의 개념적 의미가 “국가균형발전”의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연유는 무엇을 균형(balance)시키는가의 의미에서 몇 가지 다른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발전경제학에서 발전(development)의 개념은 소득과 고용증진, 생산성 향상, 공업화 등 단순한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정치제도의 발전 및 문화·국민의식의 개선, 즉 사람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현상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균형(balance)은 무엇을 균형인가를 고려할 때 균형의 차원에도 다양한 내용과 수준이 있을 수 있으나 균형발전의 맥락에서는 주로 공간(space) 및 시간(time)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개괄하면 전통적인 질적·구조적 속성의 진보(progress)의 의미와 더불어 공간 및 시간적 차원에서의 균형의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

보다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균형발전의 개념은 발전의 공간 구조적 차원(spatial dimensions)을 도입하여 소득, 고용, 산업 등의 경제력 및 인구의 지리적 분포 측면에서 (집권-집중화의 불균형 상태와 대조적으로) 분업-분산에 의해 지역간 격차(inter-regional disparities)가 줄어들고 지역발전의 균형화가 이루어진 상태, 즉 지역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상이한 국가 간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해 온 유럽연합(EU)의 구조개선기금(structural funds)은 역내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바, 이는 균형발전의 공간구조적 차원에서 단일통화 도입과 경제통합에 따른 특정

2) Patsy Healey(2002), "Balanced Development", European Spatial Planning Research & Information Database (ESPRID) Short Summary,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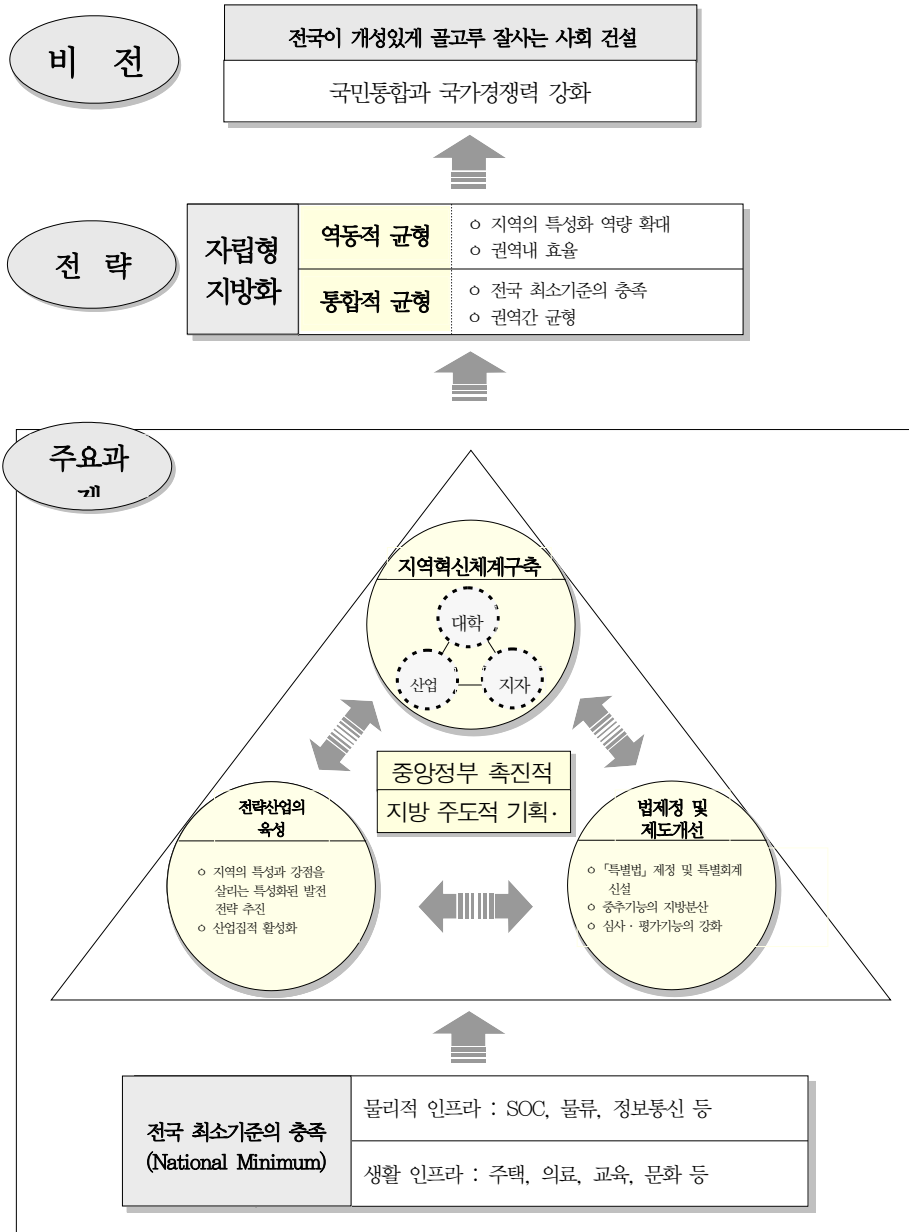
지역의 경제력 집중의 해소 및 낙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균형발전은 시간성 차원을 도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진보와 균형, 즉 현재적 시점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의 발전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균형발전은 양적, 질적, 구조적으로 지역의 발전 잠재력 개발과 혁신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을 의미하는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의 개념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사람들에게 균형적인 삶의 질과 기회를 보장하는 진보적 변화로 인식될 수 있다.³⁾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균형발전 내지 지역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 경제력(소득과 산업), 사회복지, 생활기반 시설, 교육문화적 수혜성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서도 생활수준의 정도와 삶의 질에서의 기회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3) 균형이란 정태적인 이론적 틀에 입각한 순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역간 자본 수익률 또는 투자 효율성이 균등화된 상태, 즉 지역간 균형(regional equilibrium)이 이루어진 상태로 수렴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균형성장론자인 허쉬만(A.O. Hirschman)도 지적했듯이, 현실에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지리적 불균등(부존자원과 입지적 특성)과 내부·외부경제효과(선도지역으로의 집중화와 전문화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은 불가피하다. 지역정책의 관점에서—의 균형이란 모든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균등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역간 불균형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제동효과(breaking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동태적으로 국가적 통합 및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 즉 소득, 산업, 삶의 질과 복지, 인구성장의 ‘동태적 기회 균등화’를 시도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I-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5

나. 삶의 질 및 행복의 개념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향해 다양한 발전경로와 모델을 추진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비단 일정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선진국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서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도 궁극적인 미래의 청사진을 반영한다. 역으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단지 경제적이고 외재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문화, 관행과 같은 매우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삶의 질의 문제는 성장과 분배의 쟁점을 넘어 사회발전의 근원적 동인에 관한 핵심 과제로서 이해해야 하며, 현대사회의 복합적 위기상황은 각국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단계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삶이 더 좋고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개인 선택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은 결국 주어진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삶의 질의 개념은 문화적인 틀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양 문화에서는 삶의 질이 물질적 수요에 대한 만족도에 비례하여 평가받는 데 비해 동양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수요를 억제하는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Diener and Suh, 2000; Guiso, Sapienza & Zingales, 2006). 곧 삶의 질의 문제에서 질(質) 자체는 불가피하게 가치함의를 갖는 개념이며, 따라서 삶의 질과 가치에 대한 상대적 선호는 개인적 범주를 넘어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난 세기 물질주의 가치를 앞세워 성장과 효율을 강조하는 부국강병이 사회발전의 주요 목표였다면, 21세기에서는 탈(脫)물질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문화의 역할이 훨씬 더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한 가치의 조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국제지형에서도 기존의 물리적 강제력이 아닌 문화적 매력(soft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Nye, 2005). 나아가 모바일 혁명에 따른 문화적 확산 과정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문화산업의 육성과 문화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주어진 사회의 특성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다르며, 이러한 사실은 심지어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소를 통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Harvey, 2006; Helliwell & Putnam, 2004).

사회발전 과정에서 문화적 차원의 중요성이 높아진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김혜숙, 2005). 문제는 사회문화적 차원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적 방향과 정책 설계의 내용을 찾는 데 있다. 즉, 어떤 가치체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발전시켜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사회발전에서 차지하는 문화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개인주의와 같은 가치체계의 일반적 속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표 II-1> 국가별 삶의 질 연구 측정지표

변수	측정지표	세부내용
삶의 질	삶 만족도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행복수준	행복정도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권위수용	정치조직	전반적으로 당신은 정치가 당신 삶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근면정신	경제성공	당신은 근면이 경제적 성공과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가?
신뢰수준	사회자본	전반적으로 당신은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가?

변수	측정지표	세부내용
기부문화	공동체	당신은 기부시민단체 구성원, 적극적 활동, 소극적 활동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성별지향	분업구조	전반적으로 당신은 남성이 여성보다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보는가?
경쟁추구	생존가치	당신은 경쟁이 개인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정신주의	탈물질	당신은 물질주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아표현	심미가치	당신은 자아표현을 가정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가?
개인주의	관용수준	당신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가정교육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가?
행동주의	참여수준	당신은 정당구성원, 적극적 활동, 소극적 활동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위협성향	도전정신	당신은 삶의 활기에 대해 위협추구 성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국가별 평균 1,491명 면접조사, 10점에서 5점 척도), World Values Survey, 2014.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행복이란 주관적일 뿐 아니라 다의적인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행복을 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존재하여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 － 행복은 개인의 전체 삶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과 평가로 정의되기도 하며(Diener, 2007 ; Dolan, 2007), 삶의 질, 주관적 삶의 만족, well-being 등과 비슷한 의미로도 사용(Veenhoven, 2007 ; Donnelly, 2004)
 - － 행복의 객관적 환경 요인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행복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
 - － 실제 ‘삶의 질’, ‘생활수준’, ‘복리’, ‘복지’, ‘행복도’ 등 다양한 용어의 조합은 매우 추상적인 의미여서 일치된 개념도 없고 영역과 지표선택

과정에 대해 합의된 바도 없으며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상황(Galloway, 2005: 10)

- Schalock(2000: 117)에 따르면 삶의 질과 관련하여 100가지 이상의 개념 정의와 해석이 폭넓게 존재한다고 지적
- 대체로 삶의 물질적 조건과 더불어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개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
- 학자들은 행복은 크게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만족감의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제시(Diener, 1984; Diener & Emmons, 1985)
- 객관적 조건이란 삶의 다양한 물리적 구성요소, 즉 의식주, 건강,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여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파악되는 삶의 물질적 조건
- 주관적 만족감이란 흔히 웰빙이라고 불리는 주관적인 차원으로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의 부재 등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태를 의미
- 행복이란 객관적 삶의 조건을 통하여 개인이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지속적 만족감으로서 그 안에는 삶의 궁극적, 절대적 가치가 내포
- 행복이란 모든 인간 행위의 최고의 선이자 목적으로서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표현하는 개념(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
- 즉, 삶의 최고 목적인 행복이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부합하는 목적을 의미하는데 자연적 본성이라 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탁월한 덕성을 의미
- 행복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여 하나의 수치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며 198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행복지수가 개발

- 기존의 GDP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행복지수’는 고용, 보건, 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지표를 일컬음(기획재정부, 2012)
- 미국 미시간대 사회연구소는 1981년부터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발표
 - 이를 위한 기초자료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에 의하여 확보
 - 세계 각국 국민 1,000~2,000명에게 설문을 돌려 각자가 느끼는 ‘행복도’와 ‘생활 만족도’ 점수를 매긴 다음 평균을 내서 행복지수를 산출하는데 ‘행복지수’는 편의상 번역이고 원래 명칭은 ‘주관적 웰빙순위(Subjective Well-being Rankings)’임
-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상담사 코언(Cohen)이 2002년 발표한 행복공식이 대표적인 행복지수
 - 행복이 인생관·적응력·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personal), 건강·돈·인간관계 등 생존조건을 가리키는 E(existence), 야망·자존심·기대·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her order)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 세 가지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적용하여 행복도를 $P+(5E)+(3H)$ 의 행복방정식으로 정의
-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CSD, 리우+20)를 통해 ‘행복지수’에 관한 논의의 진전이 예상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리우+20’이 국내총생산

(GDP)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지표의 탄생을 자리매김하는 회의가 되어야 함을 강조

- GDP와 같은 순수 경제적 수치에서 벗어나 복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에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이 관심 표명

- 국내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으로 증대하였으나, 소득분배, 여가생활, 환경, 복지 등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부재
 -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의 발전정도, 국민의 행복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국내외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대
- 세계적으로 행복지수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의미 있는 행복지수들이 속속 개발

- 부탄의 국민 행복 지수(GNH) :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 국왕은 취임 2년 만인 '74년 GDP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하고, 제66차 UN 총회('12.4.2)에서 국가발전 정도를 GDP나 GNI가 아닌 GNH에 의해 측정할 것을 주장
- UN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개발된 복합적 지수로 1990년부터 각국의 평균수명과 교육수준, 1인당 국민 소득 등 모두 206개 지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사회적 웰빙을 정량화하려는 유엔의 대표적 업적으로 자리 매김
-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 (Better life Initiative: BLI) : OECD가 2011년 창설 50주년을 맞아 시작한 행복지수로서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11개 영역에 대한 점수로 산출하고 있으며 GDP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에 주목

- UN은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 2012년 4월 '05년~'11년까지 156개국 15세~60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행복도를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국내총생산과 소득은 충분한 후생지표는 아니나 여전히 중요하며 질과 양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개념이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해 질 전망
- 생산에만 집중된 GDP를 보완해 삶의 질과 생태환경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행복지수와 같은 지표의 필요성은 많은 국가로 확대될 전망
- 각국은 GDP가 고려하지 않는 외부비경제효과 창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국민총행복지수를 증대하고 UN은 새천년개발목표에 이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구체화할 전망
- 각국에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므로 행복지수 개발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중요
- 단, GDP와 같이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자료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전제

이상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정의한 삶의 질 또는 행복에 대한 개념을 요약정리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기존의 개념 정의와 달리 행복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 중심에서의 탈피한 사회문화 고려
 - 그간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것은 GDP를 비롯한 경제적 지표들이었음
 - GDP와 경제적 요인들은 객관적인 기준 하에서 계량화가 용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보유
 - 그러나 최근 들어 삶의 질 수준은 단순히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지표로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
 - GDP는 경제지표로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많은 한계
 - 예컨대 범죄가 늘어 정부지출이 늘어나거나 질병이 늘어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해도 GDP는 증가
- GDP로 대표되는 경제적 지표만으로 행복 또는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Easterlin의 행복역설임
 - Easterlin(1974, 199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행복수준은 빈곤선(poverty line)에 근접할수록 소득과 강한 관련성을 보이며, 한 국가 내에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소득이 상승하여 어느 정도의 기본욕구가 충족된 국가들에서는 개인의 행복 체감도가 반드시 소득에 비례하지 않음을 확인
 - Inglehart(1990)의 경우에도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통해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과 삶의 만족감의 관계를 볼 때, 15,000 달러를 넘으면 ‘효용체감’을 보이며 사실상 행복은 소득과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이처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 증가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정신적인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일반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소득이 높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조사결과들을 보면 모든 국가가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님
 -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수준과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의 행복감은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다른 사회의 욕구 조건의 차이를 고려해서 삶의 만족을 평가할 필요(Veenhoven, 1989)
- 즉 소득 증가로 대표되는 물질적인 지표들이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지표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경제적 요인에서 삶의 질 요인으로 변화
 -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소득이 약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 HDI(인간개발지수)를 산출할 때, GDP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이 핵심요소가 아니므로 1인당 소득이 비슷해도 지수의 결과는 크게 차이
- 저개발 국가에서는 낮은 소득, 식량부족, 보건의료에의 낮은 접근성, 안전한 의식주 부족,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소득의 증가가 중요하지만 기초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저하
 -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이면에 이혼율(OECD 국가 중 7위),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등이 증가하고 계층 간의 소득격차도 심화(지니계수 : '03년 0.27 → '12년 0.31)

- 국민소득이 2만달러 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행복에 있어 소득보다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가치관, 안정된 고용, 개인의 자유와 안전, 높은 수준의 신뢰, 견고한 공동체, 정부와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등 삶의 질이 점차 중요해지는 경향
- 우리나라도 점차 이스털린의 역설이 의미를 갖는 소득수준에 도달
-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에 비해 국민 행복 지수는 매우 낮게 나오는 편임
- 2012년 전미경제조사국(NBER)은 세계 상위 25개국 국민의 소득별 행복도를 분석한 결과 "인간의 행복은 소득과 정비례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내놓았으나 국가끼리 비교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고 우리나라의 국민행복도는 같은 소득수준의 25개국 중에서 거의 최하수준을 기록
- 이러한 결과들은 행복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민소득 이외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
- 국내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으로 증대하였으나, 소득분배, 여가생활, 환경, 복지 등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부재
-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의 발전정도, 국민의 행복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국내외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증대
-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삶의 방식 전환
- 세계행복보고서는 개인적인 가치관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타주의적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며, 높은 소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는 결과를 제시

- 급격한 개인주의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공동체를 통해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
- 공동체간의 유대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행복
-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공동체가 발달한 유럽의 강소국(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들이 대거 상위층에 포진해 있음을 주목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정책을 추진
 - 그동안의 압축성장기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의 인구유출로 전통적인 공동체가 와해됨으로써 많은 폐해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됨
 - 공동체의 복원 및 육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
- 공동체 활동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개인주의적 삶에서 얻을 수 없는 ‘나눔’, ‘배움’, ‘돌봄’, ‘봉사’ 등의 이타주의적 가치를 실현시킴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여 행복도를 증진
- 환경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향
 - 1992년 리우 세계정상회의 이후 지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경고와 함께 각국의 대처가 활발하게 진행

- 인구,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효율성, 산림, 식량, 토지이용, 식수 등 인간의 삶의 질에 직결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
- 국제환경기구(UNEP)는 리우회의 이후 20년간에도 기후변화 등 세계의 환경은 여전히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어 시급히 녹색경제(green economy)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
- 우리나라도 세계적 동향에 동참하여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녹색성장을 국정목표로 선정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
- 거시적인 지구온난화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도 일상생활과 직결된 주변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크게 증대되어 삶의 질에 미치는 환경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
- 1990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환경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
- 각종 국책사업의 시행 이전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수적인 절차로 제도가 개선
- 경제적 효율성 못지않게 자연환경의 쾌적성과 물리적 환경의 질을 개인과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
- 총량적 성장보다는 개인적 복지향상을 추구
- 국가의 총량적 성장보다는 개인의 복지와 행복이 중요한 시대로 전환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도 '장소의 번영' 보다는 '사람의 번영'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기조가 전환
- 고령화와 저성장의 추세가 고착화되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국민통합과 사회안전망 차원의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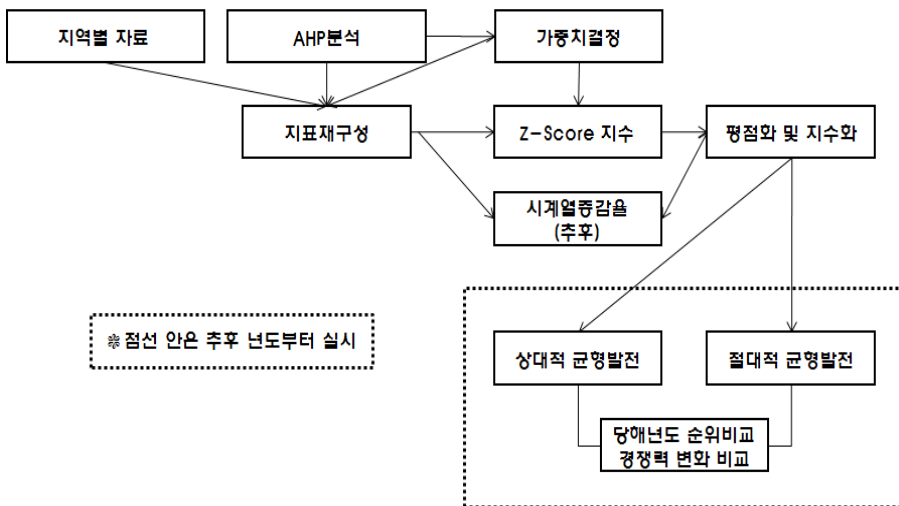
- 세계적인 고용 없는 성장, 중위소득자 소득 감소, 양극화 현상이 행복지수 감소의 원인으로 빈곤층 자활지원 시스템 강화가 복지정책의 주안점으로 부합하고 행복지수도 증대
- 행복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과잉복지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선결과제임
-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시스템의 행복증진 효과는 분명하나 과잉복지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재정건전성악화와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
- 행복도 평가에서 상위에 위치한 유럽 강소국들은 예외 없이 복지 함정에 탈출하여 복지개혁을 달성한 점을 유념할 필요
-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가족관계 변화에 주목하여 가족구성원의 새로운 역할과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시스템이 필요
- 한국사회에서 점차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과 고실업이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음
- 새로운 가족관계의 정착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역할구조가 변화하고 노인부양부담, 여성의 취업진출, 청년실업, 자녀양육부담 등이 증가하여 가족 구성원의 위기가 증폭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가 개인과 가족의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침

Ⅲ. 체육균형발전지수 개발

1. 체육균형발전지수 체계 및 균형발전(불균형) 측정

가. 체육균형발전지수 체계

본 연구의 체육균형발전 측정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체계는 다음 〈그림 Ⅲ-1〉와 같다.



<그림 Ⅲ-1> 체육균형발전 측정·평가를 위한 모형 개발 체계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체육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와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관련 정책자료, 각종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체육균형발전지수에 포함될 관련 지표의

수집분석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요 기금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체육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하되 충분하고 종합적으로 지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AHP를 통해 지표 및 분야별 가중치를 결정한다. 가중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실제 지역별 자료를 투입하여 평점화 및 지수화를 통해 체육균형발전지수(점수)를 산출한다. 평점화에 있어서는 각 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지수화의 일반적 절차는 상향식 접근방법이다. 상향식 접근방법이란 체육균형발전지수와 같이 많은 항목들로 구성된 대상을 평가할 경우 종합적 수준보다는 그 개별구성 요소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상향식 접근방법은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부문별 및 종합적인 평가수준을 도출하는 것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세부항목별 평점과 부문별 평점을 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경륜, 경쟁,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 등을 통해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문체부의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배정(안)과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기금지원사업에 배분 및 지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체육진흥기금사업 중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사업(1인당시설면적),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바우처지원비율), 지도자 배치사업(지도자배치), 국민체력100사업(체력측정인원) 등 4개의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개의 주요 생활체육 기금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는지를 진단 평가하며, 이를 기초로 해당 기금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공단의 기획재정부 경영성과평가에 대응하여 경영목표 및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지표인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과가 아닌 지역별 균형발전에 기초한 성과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생활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정책목표인 생활체육참여율 및 삶의 질 증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16개 시도별로 4개의 주요 기금지원사업에 있어서 균형이 달성되고 있는지, 역으로 불균형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2차적으로는 생활체육 진흥의 궁극적 목표인 생활체육참여율 및 삶의 질(행복도)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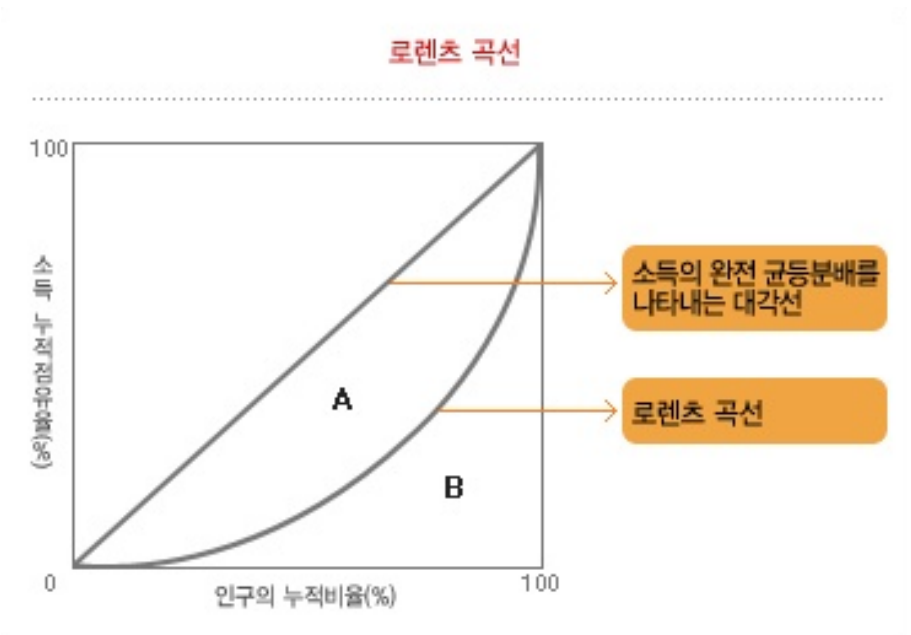
나. 지역 균형발전(불균형) 측정

오늘날 불균형 또는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가 로렌츠 곡선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를 활용한 일반적인 지수가 지니계수이다. 대표적으로는 OECD가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지니계수는 0.302로 34개국 중 평균 6위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공평하게 분배하는 수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비율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된다. 0은 완전히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수준을 의미하며,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이 높아져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매우 불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0.4 이하의 경우에는 불평등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기준으로 로렌츠 곡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에는 인구누적을 나타내고, Y축에는 한나라의 소득누적비율을 나타낸다. X축의 제일 좌측에는 인구누적 중 가장 못사는 사람들을 나타내었고 우측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10분위 분배율이라면 9분위,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우측에 위치하게 된다. 로렌츠곡선에서 원점에서 평행한 대각선을 그으면 완전평등선이 된다.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선을 기점으로 한 커다란 삼각형면적을 타원형의 면적, 즉 부채꼴의 면적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이것을 지니계수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 값이 클수록 소득이 불평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라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을 B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A/(A+B)$ 라는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완전히 평등하다면 0(A의 값이 0이므로),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라면 1이 될 것(B의 값이 0이므로)이다. 이와 같이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는데, 0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고, 1이 되면 1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소득이 한 푼도 없지만 나머지 1명은 온 나라의 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로렌츠곡선을 보면, A와 B는 면적을 의미하며, 만약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인구 누적할 때의 속도는 소득이 누적되는 속도와 같으므로 위 사각형의 대각선이 로렌츠 곡선이 되고 그 경우, $A=0$ 이 되므로 지니계수도 0이 된다. 반대로 한 사람만이 국가 전체의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0의 소득만 가지고 있다면, 인구가 누적할 때에는 계속 소득 누적점유율은 0이 될 것이지만 마지막 1사람이 계산되는 순간 소득 누적점유율은 한번에 100%를 향해 갈 것이므로 위 사각형의 아랫변이 로렌츠 곡선이 된다. 그 경우 $B=0$ 이므로 위 식에서 지니계수는 1이 됨을 알 수 있다.

2. 체육균형발전지수 투입지표 산출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지수에 투입되는 지표들의 실제 값을 측정해야 하며, 지표별 가중치를 결정해야 한다. 양적지표들은 공단 사업성과평가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질적지표인 지역별 생활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행복(삶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AHP를 활용하여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별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가.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체육활동의 환경과 체육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단일수치로 표현하는 체육균형발전지수를 개발 할 예정인 바, 본 조사는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질적성과인 생활체육참여에 따른 행복(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음

나) 조사 설계 및 진행

조사대상	➡	○ 전국의 국민(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조사지역	➡	○ 전국(제주도 포함)
표본규모	➡	○ 총 1,000표본(Sample / 유효 표본수 기준)
조사방법	➡	○ 표준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한, 전화조사
표본추출 방법 (Sampling)	➡	○ 지역(광역자치단체)별·성별·연령대별 할당(Quota)을 활용한 할당 추출(Quota Sampling)
조사기간	➡	○ 2016년 11. 9. ~ 17.(토·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본 조사는 지역(광역시자치단체)별·성별·연령대별 할당에 의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본 조사의 조사대상이 되는 전국의 20세 이상의 인구수는 아래 <표 Ⅲ-1>와 같음

<표 Ⅲ-1> 전국의 20세 이상 지역별·성별·연령대별 인구수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20대	30대	40대	50대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소계
서울	722,179	818,390	836,304	769,449	3,146,322	724,528	814,570	844,039	803,887	3,187,024
부산	240,345	248,859	278,363	296,835	1,064,402	215,542	238,278	280,791	315,510	1,050,121
대구	180,950	169,669	212,516	208,278	771,413	149,252	165,983	219,356	213,781	748,372
인천	211,731	232,304	259,118	254,344	957,497	194,409	219,832	253,213	247,219	914,673
광주	105,434	108,177	127,546	109,854	451,011	96,461	107,144	128,919	112,468	444,992
대전	112,949	113,582	131,728	119,243	477,502	100,019	110,770	132,737	119,600	463,126
울산	89,156	93,589	103,529	106,077	392,351	69,594	84,805	103,676	98,677	356,752
경기	876,939	995,577	1,168,774	1,034,891	4,076,181	800,800	963,909	1,139,528	979,865	3,884,102
강원	103,962	96,542	128,198	138,164	466,866	80,456	89,784	118,434	133,277	421,951
충북	108,098	111,441	133,967	135,734	489,240	89,506	102,027	125,645	128,043	445,221
충남	132,211	157,785	178,089	168,281	636,366	112,594	137,518	156,622	154,327	561,061
전북	116,943	117,401	154,018	152,527	540,889	101,756	109,601	141,812	145,885	499,054
전남	111,043	115,804	155,140	165,129	547,116	94,121	104,311	131,486	148,443	478,361
경북	171,320	179,414	220,282	236,096	807,112	137,123	161,958	202,008	223,795	724,884
경남	218,620	244,116	295,298	286,847	1,044,881	178,318	224,841	278,919	272,908	954,986
제주	40,101	44,094	58,716	51,975	194,886	36,066	42,642	53,482	48,387	180,577
전체	3,555,134	3,868,887	4,464,662	4,248,652	16,064,035	3,193,250	3,701,212	4,330,828	4,159,876	15,315,257

자료 : 행정자치부 홈 페이지(2016년 10월 주민등록 인구)

○ 앞의 <표 Ⅲ-1>와 같은 전국의 20세 이상의 인구수를 바탕으로 성별 인구수에 비례해 본 조사의 전체 1,000표본을 1차적으로 비례할당하고, 다음으로 지역별·연령대별 인구수에 비례해 2차적으로 할당한 결과는 아래 <표 Ⅲ-2>와 같음

<표 Ⅲ-2>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표본수

(단위 : 표본)

구분	지역별 합계	남 성					여 성				
		20대	30대	40대	50대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소계
서울	202	23	26	27	25	101	23	26	27	25	101
부산	66	7	8	9	9	33	7	7	9	10	33
대구	48	6	5	7	6	24	5	5	7	7	24
인천	60	7	7	8	8	30	7	7	8	8	30
광주	29	3	3	4	4	14	3	4	4	4	15
대전	30	3	4	4	4	15	3	4	4	4	15
울산	24	3	3	3	3	12	2	3	4	3	12
경기	254	27	31	37	32	127	26	32	37	32	127
강원	28	3	3	4	4	14	3	3	4	4	14
충북	30	3	4	4	4	15	3	4	4	4	15
충남	38	4	5	5	5	19	4	5	5	5	19
전북	33	3	4	5	5	17	3	3	5	5	16
전남	33	3	3	5	5	16	3	4	5	5	17
경북	49	5	6	7	7	25	5	5	7	7	24
경남	64	7	7	9	9	32	6	8	9	9	32
제주	12	1	1	2	2	6	1	1	2	2	6
전체	1,000	108	120	140	132	500	104	121	141	134	500

다) 조사내용

○ 본 조사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 III-3>과 같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본 보고서에 별첨한 <부록>의 조사표 참조

<표 III-3> 주요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비고
체육활동 참여 실태 관련 사항	○ 한 달 또는 일주일당 운동 횟수		
	○ 참여 중인 운동 종목		
	○ 운동하는 장소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즐거움	○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즐거움	5점 척도
		○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평온함	
		○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흥 도취감	
		○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복잡한 문제 망각	
	자 신 감	○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본인 긍정화	
		○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자아 발견	
		○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성취감	
	행 복 지 수	○ 원기왕성하며 변화의 적극 수용도	
		○ 삶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도	
○ 행복 체감도			
○ 행복감의 요인 중, 체육활동이 행복에 기여하는 비율		주관식	
응답자 특성	○ 성별		
	○ 연령대		
	○ 거주 지역(광역자치단체)		
	○ 월 평균 가계소득		

라) 통계처리 도구

- Hardware : Intel Pentium-D Processor System
- Software : 개인용 컴퓨터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14.0, MS - Excel 등

2) 조사결과 분석

가) 응답자의 특성

(1) 응답자의 특성요약

- 본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1,000명의 성별 등의 응답자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 <표 Ⅲ-4>과 같음

<표 Ⅲ-4> 응답자의 특성요약

구분		응답자수 (명)	비율 (%)	구분		응답자수 (명)	비율 (%)
♣ 전체 ♣		1,000	100.0	♣ 전체 ♣		1,000	100.0
성별	남성	500	50.0	가계 소득	99만원 이하	12	1.2
	여성	500	50.0		100만원대	30	3.0
연령대	20대	212	21.2		200만원대	114	11.4
	30대	241	24.1		300만원대	184	18.4
	40대	281	28.1		400만원대	225	22.5
	50대	239	23.9		500만원 이상	431	43.1
	60세	27	2.7		밝힐 수 없음	4	0.4

구분		응답자수 (명)	비율 (%)	구분		응답자수 (명)	비율 (%)
거주 지역	서울	202	20.2	거주 권역	수도권	516	51.6
	인천	60	6.0		충청권	98	9.8
	경기	254	25.4		호남권	95	9.5
	대전	30	3.0		영남권	251	25.1
	충북	30	3.0		기타(강원·제주권)	40	4.0
	충남	38	3.8				
	광주	29	2.9				
	전북	33	3.3				
	전남	33	3.3				
	부산	66	6.6				
	대구	48	4.8				
	울산	24	2.4				
	경북	49	4.9				
	경남	64	6.4				
	강원	28	2.8				
	제주	12	1.2				

(2) 성별

- 본 조사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각 50.0%의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 본 <표 Ⅲ-2>와 같은 표본 수 할당에 기초

(3) 연령대별

- 본 조사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8.1%로 가장 많고, ‘30대’ 24.1%, ‘50대’ 23.9%, ‘20대’ 21.2%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각 연령대별로 비교적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 본 <표 Ⅲ-2>와 같은 표본 수 할당에 기초
- 한편, ‘60세’는 2.7%의 매우 적은 비율을 보일 뿐만 아니라, ‘60세’이상의 응답자가 없는 것은 본 조사의 응답가능 연령을 ‘60세’로 한정했기 때문임

(4) 거주지역별

- 본 조사 응답자들의 거주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25.4%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20.2%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앞에서 살펴 본 <표 Ⅲ-2>와 같은 표본 수 할당에 기인

(5) 월 평균 가계소득별

- 본 조사 응답자들의 월 평균 가계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이 43.1%로 가장 많고, ‘400만원대’ 22.5%, ‘300만원대’ 18.4%, ‘200만원대’ 11.4% 등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음

나) 문항별 조사결과 분석

(1-1) 운동횟수

질 문 1개월, 또는 1주일에 몇 번이나 운동 하시는지요?

- 1개월, 또는 1주일에 몇 번이나 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1주당 4회 이상’이 21.7%로 가장 높고, 이와 유사한 비율인 21.2%로 ‘한달에 2~3회’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1주당 2회’ 20.9%, ‘1주당 3회’ 20.6%, ‘1주당 1회’ 15.6%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음
-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한 달에 2~3회’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 보다 매주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2) 운동종목

질 문 현재 하시고 계신 운동의 종목은 무엇인지요?

- 현재 하는 운동의 종목은 복수응답으로 조사되어 총 1,182건이 파악된 가운데, ‘걷기’가 41.2%로 가장 많고, ‘헬스’가 13.6%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종목이 나타나 응답자들이 참여하는 운동의 종목이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표 Ⅲ-5〉 참조)

<표 Ⅲ-5> 운동종목(복수응답)

구분	응답사례수 (건)	비율 (%)	구분	응답사례수 (건)	비율 (%)
♣ 전체 ♣	1,182	100.0	♣ 전체 ♣	1,182	100.0
걷기	487	41.2	수영	30	2.5
검도	5	0.4	스트레칭	34	2.9
경보	2	0.2	실내 자전거	6	0.5
계단오르기	8	0.7	야구	9	0.8
골프	29	2.5	에어로빅	3	0.3
근력운동	28	2.4	요가	46	3.9
농구	6	0.5	자전거	28	2.4
달리기	74	6.3	족구	2	0.2
댄스	5	0.4	줄넘기	5	0.4
덤벨	3	0.3	체조	7	0.6
등산	56	4.7	축구	46	3.9
마라톤	2	0.2	크로스핏	3	0.3

구분	응답사례수 (건)	비율 (%)	구분	응답사례수 (건)	비율 (%)
발레	1	0.1	탁구	24	2.0
배구	6	0.5	태권도	2	0.2
배드민턴	22	1.9	턱걸이	2	0.2
밸리댄스	2	0.2	테니스	21	1.8
보드	1	0.1	티볼	2	0.2
복싱	3	0.3	필라테스	7	0.6
볼링	2	0.2	헬스	161	13.6
산악 자전거	1	0.1	홀라후프	1	0.1

(1-3) 주로 운동하는 장소

질 문 주로 어느 장소에서 운동을 하지요?

- 주로 운동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기타’가 31.6%로 가장 높고, 이와 거의 유사한 비율인 30.3%로 ‘공원’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헬스장’ 18.6% ‘체육관’ 11.0% 등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기타’를 제외하고는 ‘공원’이 가장 많아 응답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체육공원이나 동네공원 등의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기타’의 구체적 장소는 ‘집안’이나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계단’, ‘산’, ‘주민자치센터’, ‘산책로’, ‘골프장’, ‘출퇴근길’, ‘학원’ 등의 다양한 장소로 구성되어 있음

(2-1) 즐거움 :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즐거움

질 문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매우 즐겁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매우 즐겁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1.2%로 가장 높고 ‘매우 그렇다’가 29.7%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보통’은 26.2%로 나타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긍정적(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응답은 70.9%, ‘중립적(보통이다)’ 응답은 26.2%인 반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은 2.9%에 불과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매우 높은 가운데,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매우 즐겁다’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2-2) 즐거움 :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평온함

질 문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마음을 편하게 해 준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

-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마음을 편하게 해 준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4.9%로 가장 높고 ‘매우 그렇다’가 31.4%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보통’은 21.3%로 나타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긍정적(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응답은 76.3%인 반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은 2.4%에 불과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매우 높은 가운데,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평온해 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4) 즐거움 :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타 활동보다 흥에 더 도취됨

질 문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다른 활동보다도 흥에 더 도취된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

-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다른 활동보다도 흥에 더 도취된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39.0%로 가장 높고 ‘그렇다’가 29.6%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는 20.9%로 나타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긍정적(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응답은 50.5%인 반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은 10.5%에 불과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타 활동보다 흥에 더 도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5) 즐거움 :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복잡한 문제 망각

질 문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일상적인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리게 한다’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요?
-----	--

-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일상적인 복잡한 문제를 잊어버리게 한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1.0%로 가장 높고 ‘매우 그렇다’가 26.7%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보통’이 26.3%로 나타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긍정적(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응답은 67.7%인 반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은 6.0%에 불과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매우 높은 가운데, 응답자의 약 2/3 정도가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운동에 몰입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요인 중 하나이며, 갈등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나 정신적 피로감을 일부 해소하는 데 운동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1) 자신감 :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자신의 긍정화

질 문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 준다’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요?
-----	--

-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 준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8.4%로 가장 높고 ‘매우 그렇다’가 30.3%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보통’이 19.2%로 나타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긍정적(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응답은 78.7%인 반면, ‘부정적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은 2.1%에 불과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매우 높은 가운데, 응답자 10명 중 약 8명 정도가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자신의 긍정화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2) 자신감 :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자아의 발견

질 문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요?
-----	---

-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6.6%로 가장 높고 이와 유사한 비율인 35.4%로 ‘보통’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가 20.8%로 나타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긍정적(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응답은 57.4%인 반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은 7.2%에 불과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매우 높은 가운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3) 자신감 :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타 활동보다 큰 성취감

질 문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다른 활동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해 준다’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요?
-----	--

-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다른 활동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해 준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6.4%로 가장 높고 이와 유사한

비율인 35.9%로 ‘보통’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가 21.2%로 나타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긍정적(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응답은 57.6%인 반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은 6.5%에 불과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매우 높은 가운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다른 활동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1) 행복지수 : 변화의 적극 수용도

질 문 ○ ○ 님께서는 사교적이고 원기왕성하며 변화를 잘 받아들이십니까?

- 응답자가 ‘사교적이고 원기왕성하며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7.9%로 가장 높고 ‘보통’이 32.7%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 18.5%, ‘그렇지 않다’ 10.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따라서, ‘긍정적(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응답은 56.4%인 반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은 10.9%로 높지 않아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교적이고 원기 왕성하게 활동하며, 변화를 수용함에 있어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4-2) 행복지수 : 삶의 기본적 욕구 충족도

질 문 ○ ○ 님께서는 건강, 돈, 안전, 선택의 자유, 공동체 의식 등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되는 편입니까?

- 응답자가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되는 편’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2.9%로 가장 높고 ‘보통’이 33.7%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가 17.6%로 나타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긍정적(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응답은 60.5%인 반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은 5.8%에 불과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매우 높은 가운데,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삶의 기본적 욕구가 잘 충족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3) 행복지수 : 행복 체감도

질 문	○○님께서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응답자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45.8%로 가장 높고 ‘보통’이 29.7%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가 20.7%로 나타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긍정적(매우 그렇다 + 그렇다)’ 응답은 66.5%인 반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은 3.8%에 불과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매우 높은 가운데, 응답자의 약 2/3정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4-4)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종합

- 앞에서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10개 지표별 응답결과를 살펴보았는데, 10개 지표별 조사결과를 일괄적으로 용이하게 비교하기 위해 5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10개 지표를 동시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자신의 긍정화'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76.7점으로 나타나 10개 지표 중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고 이와 유사한 수준인 76.3점으로 '생활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평온감'이 2번째 높으며, '생활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즐거움'이 74.3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반면,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타 활동보다 흥에 더 도취'의 경우 65.0점으로 10개 지표 중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변화의 적극 수용도'의 경우도 65.9점으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4-5)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행복 기여도

질 문	○ ○ 님께서는 행복을 느끼는 다양한 요인(예: 소득, 직무만족, 가족관계, 취미활동, 체육활동 등) 중에서, 순수하게 체육활동이 귀하의 행복에 기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행복을 느끼는 다양한 요인(예: 소득, 직무만족, 가족관계, 취미활동, 체육활동 등) 중 '순수하게 체육활동이 행복에 기여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30%대'가 22.8%로 가장 높고 '50%대'가 15.1%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20%대'가 13.8%로 3번째 높게 나타났음
- 반면, '90%'는 0.8%, '9% 이하'도 1.1%로 최고 및 최저 수준의 기여도에 응답한 경우는 아주 미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응답자들이 답변한 체육활동이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는 평균 42.5%로 산출되어 체육활동이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응답자 특성별 교차분석

(1) 운동횟수

- 운동횟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1주당 4회 이상’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50~60세’, 가계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과 ‘400만원대’, 거주지역별로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은 제외하고 ‘전북’, 거주권역별로는 ‘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1주당 4회 이상’과 유사한 비율을 보인 ‘한달에 2~3회’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 연령대별로는 ‘20대’, 가계소득별로는 ‘100만원대’, 거주지역별로는 ‘경기’, 거주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Ⅲ-6> 응답자 특성별 운동횟수

(단위 : %)

구분		응답자 수(명)	한달에 2~3회	1주당 1회	1주당 2회	1주당 3회	1주당 4회 이상	합계
♣ 전체 ♣	♣	1,000	21.2	15.6	20.9	20.6	21.7	100.0
	♣							
성별	남성	500	18.0	17.0	21.0	21.0	23.0	100.0
	여성	500	24.4	14.2	20.8	20.2	20.4	100.0
연령대	20대	212	27.4	12.3	17.9	22.6	19.8	100.0
	30대	241	24.9	15.8	21.6	23.2	14.5	100.0
	40대	281	21.0	16.7	23.1	16.7	22.4	100.0
	50~60세	266	13.2	16.9	20.3	20.7	28.9	100.0
가계소득	99만원 이하	12	33.3		16.7	41.7	8.3	100.0
	100만원대	30	43.3	13.3	10.0	10.0	23.3	100.0
	200만원대	114	32.5	13.2	17.5	24.6	12.3	100.0
	300만원대	184	22.8	17.9	19.6	19.6	20.1	100.0
	400만원대	225	19.1	17.3	20.4	19.1	24.0	100.0
	500만원 이상	431	16.7	14.6	23.7	20.9	24.1	100.0
	밝힐 수 없음	4	25.0	50.0		25.0		100.0

<표 III-6> 계속

(단위 : %)

구분		응답자 수 (명)	한달에 2~3회	1주당 1회	1주당 2회	1주당 3회	1주당 4회 이상	합계
♣ 전체 ♣		1,000	21.2	15.6	20.9	20.6	21.7	100.0
거주 지역	서울	202	31.2	18.3	17.3	17.8	15.3	100.0
	부산	66	27.3	18.2	18.2	16.7	19.7	100.0
	대구	48	6.3	8.3	29.2	25.0	31.3	100.0
	인천	60	8.3	18.3	26.7	16.7	30.0	100.0
	광주	29	6.9	13.8	20.7	27.6	31.0	100.0
	대전	30	10.0	26.7	23.3	26.7	13.3	100.0
	울산	24	25.0	4.2	29.2	20.8	20.8	100.0
	경기	254	34.3	16.9	19.3	18.1	11.4	100.0
	강원	28	7.1	10.7	14.3	46.4	21.4	100.0
	충북	30	10.0	23.3	20.0	23.3	23.3	100.0
	충남	38	7.9	26.3	21.1	15.8	28.9	100.0
	전북	33	6.1	9.1	24.2	15.2	45.5	100.0
	전남	33	21.2	3.0	33.3	18.2	24.2	100.0
	경북	49	6.1	4.1	32.7	26.5	30.6	100.0
	경남	64	6.3	12.5	14.1	28.1	39.1	100.0
	제주	12	8.3	16.7	8.3	16.7	50.0	100.0
거주 권역	수도권	516	30.0	17.6	19.4	17.8	15.1	100.0
	충청권	98	9.2	25.5	21.4	21.4	22.4	100.0
	호남권	95	11.6	8.4	26.3	20.0	33.7	100.0
	영남권	251	13.5	10.8	23.1	23.5	29.1	100.0
	강원· 제주권	40	7.5	12.5	12.5	37.5	30.0	100.0

(2) 운동종목

○ 운동종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걷기’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 연령대별로는 ‘50~60세’, 가계소득별로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은 집단은 제외하고 ‘100만원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Ⅲ-7〉 참조)

<표 Ⅲ-7> 응답자 특성별 운동종목(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응답사례 수(건)	걷기	검도	경보	계단 오르기	골프	근력 운동	농구	달리기	댄스
♣ 전체 ♣		1,182	41.2	0.4	0.2	0.7	2.5	2.4	0.5	6.3	0.4
성 별	남성	597	31.8	0.7	0.2	0.5	3.5	2.7	1.0	8.4	0.3
	여성	585	50.8	0.2	0.2	0.9	1.4	2.1		4.1	0.5
연 령 대	20대	250	33.6	1.2	0.4	0.4	0.4	4.0	1.6	9.6	0.8
	30대	280	39.6	0.4		1.1	1.4	2.9	0.4	7.9	0.4
	40대	330	42.4		0.3	0.6	2.7	2.1	0.3	6.7	0.3
	50~60세	322	47.2	0.3		0.6	4.7	0.9		1.9	0.3
가 계 소 득	99만원 이하	13	46.2							7.7	
	100만원대	34	50.0					2.9		14.7	
	200만원대	133	46.6	0.8		0.8	0.8	3.0		8.3	0.8
	300만원대	215	39.1		0.9	0.5	0.9	3.3	0.9	5.1	0.9
	400만원대	269	40.9			1.1	2.2	1.9	0.4	5.9	0.4
	500만원 이상	514	40.1	0.6		0.6	3.9	2.1	0.6	5.8	0.2
	밝힐 수 없음	4	50.0	25.0							

주) 조사결과, 응답된 운동종목이 40개에 달하고, 운동종목과 지역별로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아 표의 간략한 제시를 위해 지역별 교차분석표는 제시하지 않음

<표 III-7> 계속

(단위 : %)

구분	팀벨	등산	마라톤	발레	배구	배드민턴	팰리댄스	보드	복싱	볼링	산악자전거	수영
♣ 전체 ♠	0.3	4.7	0.2	0.1	0.5	1.9	0.2	0.1	0.3	0.2	0.1	2.5
성별	남성	0.5	5.4	0.2		0.5	2.5		0.5	0.2	0.2	2.3
	여성		4.1	0.2	0.2	0.5	1.2	0.3	0.2	0.2		2.7
연령대	20대	1.2	2.8		0.4		1.6					2.0
	30대		1.8				1.1	0.4	0.4	0.4		2.5
	40대		3.6	0.3		1.2	2.4	0.3		0.3	0.3	3.0
	50~60세		9.9	0.3		0.6	2.2		0.6			2.5
가계소득	99만원 이하					7.7						
	100만원대		5.9			2.9						2.9
	200만원대		2.3			0.8			0.8			3.8
	300만원대		5.1		1.9	1.4			0.5	0.9		1.9
	400만원대	1.1	3.7	0.4	0.4	1.9						2.6
	500만원 이상 밝힐 수 없음		5.8	0.2	0.4	2.1	0.4	0.2	0.2		0.2	2.5

<표 III-7> 계속

(단위 : %)

구분	스트레칭	실내자전거	야구	에어로빅	요가	자전거	족구	줄넘기	체조	축구	크로스핏
♣ 전체 ♠	2.9	0.5	0.8	0.3	3.9	2.4	0.2	0.4	0.6	3.9	0.3
성별	남성	1.2	0.3	1.5		0.2	2.5	0.3	0.3	0.5	7.5
	여성	4.6	0.7		0.5	7.7	2.2		0.5	0.7	0.2
연령대	20대	2.8	0.8	0.4		4.0	2.8		1.2	0.8	5.2
	30대	2.9	0.4	2.5	0.4	3.6	2.5		0.4	0.7	5.7
	40대	3.0	0.6	0.3	0.6	4.8	1.8	0.6			3.3
	50~60세	2.8	0.3			3.1	2.5		0.3	0.9	1.9
가계소득	99만원 이하					7.7					
	100만원대	5.9						2.9	2.9		
	200만원대	3.0		1.5		4.5	1.5			6.0	
	300만원대	2.3	0.9			3.3	4.2		0.9	5.6	0.5
	400만원대	3.3	0.7		0.4	2.6	2.6	0.4	0.7	0.7	4.8
	500만원 이상 밝힐 수 없음	2.7	0.4	1.4	0.4	4.9	1.9	0.2	0.4	0.4	2.5

<표 Ⅲ-7> 계속

(단위 : %)

구분	탁구	태권도	탁걸이	테니스	티볼	필라테스	헬스	홀라후프	합계
♣ 전체 ♣	2.0	0.2	0.2	1.8	0.2	0.6	13.6	0.1	100.0
성별									
남성	2.5	0.3	0.3	2.5	0.3		18.1		100.0
여성	1.5			1.0		1.2	9.1	0.2	100.0
연령대									
20대	1.6	0.8	0.4	0.4		1.6	17.2		100.0
30대	1.8		0.4	0.4	0.4	1.1	15.7		100.0
40대	2.1			2.7	0.3		12.4	0.3	100.0
50~60세	2.5			3.1			10.2		100.0
가계소득									
99만원 이하				7.7			23.1		100.0
100만원대							8.8		100.0
200만원대	0.8		0.8	1.5		0.8	11.3		100.0
300만원대	3.3	0.5	0.5	0.9	0.5		13.5		100.0
400만원대	1.9			2.6		0.4	15.2	0.4	100.0
500만원 이상	2.1	0.2		1.8	0.2	1.0	13.4		100.0
밝힐 수 없음							25.0		100.0

(3) 주로 운동하는 장소

- 주로 운동을 하는 장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난 ‘공원’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 연령대별로는 ‘40대’, 가계소득별로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은 집단은 제외하고 ‘100만원대’, 거주지역별로는 ‘경기’, 거주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표 Ⅲ-8> 참조)

<표 Ⅲ-8> 응답자 특성별 주로 운동하는 장소

(단위 : %)

구분		응답자 수(명)	공원	체육관	헬스장	학교 운동장	기타	합계
♣ 전체 ♣		1,000	30.3	11.0	18.6	8.5	31.6	100.0
성 별	남성	500	26.8	12.6	22.2	12.2	26.2	100.0
	여성	500	33.8	9.4	15.0	4.8	37.0	100.0
연 령 대	20대	212	27.4	7.5	25.0	9.9	30.2	100.0
	30대	241	27.4	9.1	19.5	10.4	33.6	100.0
	40대	281	33.1	13.9	17.8	6.8	28.5	100.0
	50~60세	266	32.3	12.4	13.5	7.5	34.2	100.0
가 계 소 득	99만원 이하	12	50.0	8.3	25.0	8.3	8.3	100.0
	100만원대	30	43.3	6.7	16.7	3.3	30.0	100.0
	200만원대	114	29.8	5.3	18.4	13.2	33.3	100.0
	300만원대	184	27.7	12.0	18.5	9.8	32.1	100.0
	400만원대	225	27.6	10.2	17.3	8.9	36.0	100.0
	500만원 이상	431	31.6	12.8	19.3	7.0	29.5	100.0
	밝힐 수 없음	4	25.0	25.0	25.0		25.0	100.0

<표 Ⅲ-8> 계속

(단위 : %)

구분		응답자 수(명)	공원	체육관	헬스장	학교 운동장	기타	합계
♣ 전체 ♣		1,000	30.3	11.0	18.6	8.5	31.6	100.0
거 주 지 역	서울	202	39.6	8.4	20.8	5.4	25.7	100.0
	부산	66	25.8	9.1	15.2	25.8	24.2	100.0
	대구	48	6.3	8.3	25.0	12.5	47.9	100.0
	인천	60	21.7	5.0	18.3	6.7	48.3	100.0
	광주	29	20.7	3.4	20.7	6.9	48.3	100.0
	대전	30	13.3	6.7	23.3	10.0	46.7	100.0
	울산	24	37.5		20.8	20.8	20.8	100.0
	경기	254	45.7	13.0	20.5	3.1	17.7	100.0
	강원	28	14.3	17.9	28.6	21.4	17.9	100.0
	충북	30	26.7	10.0	10.0	16.7	36.7	100.0
	충남	38	15.8	7.9	13.2	7.9	55.3	100.0
	전북	33	21.2	15.2	9.1		54.5	100.0
	전남	33	27.3	24.2	15.2	12.1	21.2	100.0
	경북	49	18.4	10.2	14.3	4.1	53.1	100.0
	경남	64	15.6	17.2	12.5	14.1	40.6	100.0
	제주	12	16.7	33.3	16.7		33.3	100.0

구분		응답자 수(명)	공원	체육관	헬스장	학교 운동장	기타	합계
거주권역	수도권	516	40.5	10.3	20.3	4.5	24.4	100.0
	충청권	98	18.4	8.2	15.3	11.2	46.9	100.0
	호남권	95	23.2	14.7	14.7	6.3	41.1	100.0
	영남권	251	19.1	10.4	16.7	15.5	38.2	100.0
	강원·제주권	40	15.0	22.5	25.0	15.0	22.5	100.0

(4) 즐거움

-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 중 ‘즐거움’ 영역의 4개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즐거움’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50~60세’, 가계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거주지역별로는 ‘전남’, 거주권역별로는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표 III-9〉 참조)

- 다음으로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평온함’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50~60세’, 가계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거주지역별로는 ‘전남’, 거주권역별로는 ‘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타 활동보다 흥에 도취됨’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50~60세’, 가계소득별로는 ‘300만원대’, 거주지역별로는 ‘전남’, 거주권역별로는 ‘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복잡한 문제 망각’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50~60세’, 가계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거주지역별로는 ‘경남’, 거주권역별로는 ‘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Ⅲ-9> 응답자 특성별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즐거움'

(단위 : 점)

구분		응답자 수(명)	즐거움	평온함	타 활동보다 흥에 더 도취	복잡한 문제 망각
♣ 전체 ♣		1,000	74.3	76.3	65.0	71.9
성 별	남성	500	76.4	77.2	68.0	72.5
	여성	500	72.2	75.3	62.0	71.4
연 령 대	20대	212	69.6	73.6	60.3	69.5
	30대	241	72.5	74.2	63.3	70.3
	40대	281	76.4	78.0	66.3	71.4
	50~60세	266	77.3	78.4	68.9	75.9

<표 Ⅲ-9> 계속

(단위 : 점)

구분		응답자 수(명)	즐거움	평온함	타 활동보다 흥에 더 도취	복잡한 문제 망각
♣ 전체 ♣		1,000	74.3	76.3	65.0	71.9
가 계 소 득	99만원 이하	12	68.8	77.1	64.6	72.9
	100만원대	30	60.8	66.7	56.7	62.5
	200만원대	114	66.7	67.8	57.5	64.7
	300만원대	184	76.4	77.6	68.5	72.6
	400만원대	225	73.2	75.3	64.1	70.7
	500만원 이상	431	77.1	79.1	66.5	74.9
거 주 지 역	밝힐 수 없음	4	68.8	75.0	62.5	68.8
	서울	202	69.4	72.0	61.8	70.4
	부산	66	66.3	66.3	61.4	63.6
	대구	48	79.2	83.9	69.8	80.2
	인천	60	79.2	79.6	67.5	71.3
	광주	29	81.0	84.5	71.6	79.3
	대전	30	75.8	77.5	60.8	71.7
	울산	24	80.2	81.3	65.6	76.0
	경기	254	67.9	69.5	60.2	66.4
	강원	28	75.0	76.8	63.4	67.0
	충북	30	85.0	84.2	75.8	80.0
	충남	38	86.2	86.8	72.4	78.9
	전북	33	78.8	80.3	64.4	75.0
	전남	33	87.1	91.7	78.0	78.8
	경북	49	78.6	81.6	66.3	77.0
	경남	64	82.4	85.9	72.3	80.9
	제주	12	83.3	83.3	75.0	77.1
거 주 권 역	수도권	516	69.8	71.7	61.7	68.6
	충청권	98	82.7	83.2	69.9	77.0
	호남권	95	82.4	85.5	71.3	77.6
	영남권	251	76.6	79.1	67.1	75.0
	강원·제주권	40	77.5	78.8	66.9	70.0

(5) 자신감

-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 중 ‘자신감’ 영역의 3개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자신의 긍정화’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50~60세’, 가계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거주지역별로는 ‘전남’, 거주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표 III-10〉 참조)
 - 다음으로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자아의 발견’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50~60세’, 가계소득별로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은 집단은 제외하고 ‘300만원대’, 거주지역별로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은 제외하고 ‘충북’, 거주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타 활동보다 큰 성취감’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50~60세’, 가계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거주지역별로는 ‘전남’, 거주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Ⅲ-10> 응답자 특성별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자신감'

(단위 : 점)

구분		응답자 수(명)	자신의 긍정화	자아 발견	타 활동보다 더 큰 성취감
♣ 전체 ♣		1,000	76.6	67.4	67.8
성 별	남성	500	77.9	68.6	69.2
	여성	500	75.4	66.2	66.5
연 령 대	20대	212	74.2	60.3	61.7
	30대	241	74.9	66.5	66.2
	40대	281	76.9	68.9	69.4
	50~60세	266	80.0	72.3	72.6

<표 Ⅲ-10> 계속

(단위 : 점)

구분		응답자 수(명)	자신의 긍정화	자아 발견	타 활동보다 더 큰 성취감
♣ 전체 ♣		1,000	76.6	67.4	67.8
가 계 소 득	99만원 이하	12	75.0	75.0	68.8
	100만원대	30	68.3	57.5	62.5
	200만원대	114	72.8	63.2	62.7
	300만원대	184	76.5	69.7	68.5
	400만원대	225	74.1	66.0	67.3
	500만원 이상	431	79.8	68.7	69.5
거 주 지 역	발할 수 없음	4	68.8	68.8	62.5
	서울	202	75.0	65.5	66.2
	부산	66	70.8	65.9	63.3
	대구	48	81.3	73.4	70.3
	인천	60	74.6	64.2	62.9
	광주	29	79.3	69.8	69.8
	대전	30	78.3	61.7	67.5
	울산	24	79.2	70.8	68.8
	경기	254	71.5	63.1	63.7
	강원	28	76.8	62.5	68.8
	충북	30	85.8	77.5	75.8
	충남	38	84.2	74.3	73.7
	전북	33	76.5	65.9	64.4
	전남	33	88.6	75.8	79.5
	경북	49	80.1	69.9	73.0
	경남	64	85.2	75.8	78.5
	제주	12	83.3	81.3	75.0
거 주 권 역	수도권	516	73.2	64.1	64.6
	충청권	98	82.9	71.4	72.4
	호남권	95	81.6	70.5	71.3
	영남권	251	79.1	71.1	70.9
	강원·제주권	40	78.8	68.1	70.6

(6) 행복지수

-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 중 ‘행복지수’ 영역의 3개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변화의 적극 수용도’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50~60세’, 가계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거주지역별로는 ‘경남’, 거주권역별로는 ‘호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표 Ⅲ-11〉 참조)

- 다음으로 ‘삶의 기본적 욕구 충족도’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50~60세’, 가계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거주지역별로는 ‘충북’, 거주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행복 체감도’의 경우 성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연령대별로는 ‘50~60세’, 가계소득별로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은 집단을 제외하고 ‘500만원 이상’, 거주지역별로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은 제외하고 ‘경북’, 거주권역별로는 ‘강원·제주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Ⅲ-11> 응답자 특성별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행복지수’

(단위 : 점)

구분		응답자 수(명)	변화의 적극 수용	삶의 기본적 욕구 충족도	행복체감도
♣ 전체 ♣		1,000	65.9	68.0	70.8
성 별	남성	500	67.5	69.3	71.1
	여성	500	64.3	66.7	70.5
연 령 대	20대	212	64.6	66.6	70.2
	30대	241	64.7	67.5	70.0
	40대	281	64.0	66.8	70.2
	50~60세	266	69.9	70.8	72.6

<표 Ⅲ-11> 계속

(단위 : 점)

구분		응답자 수(명)	변화의 적극 수용	삶의 기본적 욕구 충족도	행복체감도
♣ 전체 ♣		1,000	65.9	68.0	70.8
가 계 소 득	99만원 이하	12	66.7	60.4	68.8
	100만원대	30	60.0	61.7	66.7
	200만원대	114	60.7	61.2	65.6
	300만원대	184	65.2	65.4	68.5
	400만원대	225	63.3	67.2	68.2
	500만원 이상	431	69.2	72.0	74.8
	밝힐 수 없음	4	68.8	68.8	75.0
거 주 지 역	서울	202	62.4	63.7	67.6
	부산	66	61.7	59.5	67.0
	대구	48	73.4	75.0	74.0
	인천	60	68.8	71.7	72.1
	광주	29	68.1	69.8	78.4
	대전	30	59.2	68.3	70.0
	울산	24	68.8	65.6	68.8
	경기	254	61.8	63.3	66.4
	강원	28	61.6	71.4	76.8
	충북	30	74.2	80.0	78.3
	충남	38	71.1	74.3	74.3
	전북	33	71.2	69.7	72.0
	전남	33	71.2	74.2	75.8
	경북	49	70.4	77.6	79.1
	경남	64	74.6	76.2	76.2
	제주	12	72.9	77.1	81.3
거 주 권 역	수도권	516	62.8	64.4	67.5
	충청권	98	68.4	74.2	74.2
	호남권	95	70.3	71.3	75.3
	영남권	251	69.6	70.8	73.2
	강원·제주권	40	65.0	73.1	78.1

(7)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행복 기여도

- 순수하게 체육활동이 행복에 기여하는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30%대’의 경우 성별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가계소득별로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은 집단은 제외하고 ‘100만원대’, 거주지역별로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은 제외하고 ‘서울’, 거주권역별로는 ‘강원·제주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표 Ⅲ-12> 참조)
- 2번째 높게 나타난 ‘50%대’의 경우 성별·연령대별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가계소득별로는 응답자 수가 많지 않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유의하지 않고, 거주지역별로는 ‘충남’, 거주권역별로는 ‘강원·제주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Ⅲ-12> 응답자 특성별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행복 기여도

(단위 : %)

구분	응답자 수(명)	9% 이하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	90% 이상	합계
♣ 전체 ♣	1,000	1.1	8.2	13.8	22.8	10.6	15.1	9.2	9.9	8.5	0.8	100.0
성 별	남성	500	1.4	6.0	12.8	22.0	11.6	15.8	10.2	9.0	9.8	100.0
	여성	500	0.8	10.4	14.8	23.6	9.6	14.4	8.2	10.8	7.2	100.0
연 령 대	20대	212	0.5	12.7	19.3	23.6	9.4	14.6	5.2	7.1	6.1	100.0
	30대	241	2.5	9.1	16.2	24.9	8.7	14.5	8.3	8.7	6.2	100.0
	40대	281	1.1	7.5	12.1	24.6	12.5	15.7	8.9	11.0	6.4	100.0
	50~60세	266	0.4	4.5	9.0	18.4	11.3	15.4	13.5	12.0	14.7	100.0
가 계 소 득	99만원 이하	12		8.3	8.3	33.3	16.7	16.7		8.3	8.3	100.0
	100만원대	30	3.3	10.0	10.0	33.3	13.3	13.3	6.7	3.3	6.7	100.0
	200만원대	114		9.6	9.6	26.3	11.4	14.9	10.5	13.2	4.4	100.0
	300만원대	184	1.1	7.1	12.5	25.0	13.0	12.0	9.2	11.4	8.2	100.0
	400만원대	225	0.9	8.9	12.9	20.9	9.3	16.0	8.9	9.8	11.1	100.0
	500만원 이상	431	1.4	7.9	16.5	21.1	9.5	15.8	9.5	9.0	8.4	100.0
	밝힐 수 없음	4					25.0	50.0		25.0		100.0

<표 Ⅲ-12> 계속

(단위 : %)

구분		응답자 수(명)	9% 이하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	90 %	합계
♣ 전체 ♣		1,000	1.1	8.2	13.8	22.8	10.6	15.1	9.2	9.9	8.5	0.8	100.0
거주 지역	서울	202	0.5	11.9	13.9	31.2	8.9	14.4	3.5	8.9	6.4	0.5	100.0
	부산	66		4.5	12.1	18.2	10.6	16.7	10.6	12.1	15.2		100.0
	대구	48			6.3	27.1	12.5	22.9	8.3	6.3	16.7		100.0
	인천	60		6.7	15.0	25.0	6.7	16.7	8.3	13.3	8.3		100.0
	광주	29	3.4	6.9	31.0	6.9	6.9	13.8	10.3	10.3	10.3		100.0
	대전	30		6.7	30.0	13.3	23.3	10.0	6.7	10.0			100.0
	울산	24		8.3	25.0	12.5	16.7	12.5		8.3	12.5	4.2	100.0
	경기	254	3.1	11.0	12.2	23.2	13.0	13.8	11.0	8.7	3.5	0.4	100.0
	강원	28			10.7	25.0	10.7	17.9	10.7	10.7	10.7	3.6	100.0
	충북	30	3.3		6.7	13.3	10.0	6.7	26.7	13.3	16.7	3.3	100.0
	충남	38		5.3	15.8	18.4	7.9	31.6	5.3	2.6	10.5	2.6	100.0
	전북	33		12.1	15.2	21.2	6.1	15.2	12.1	9.1	9.1		100.0
	전남	33		9.1	12.1	24.2	9.1	12.1	6.1	18.2	9.1		100.0
	경북	49		8.2	16.3	24.5	10.2	12.2	2.0	12.2	12.2	2.0	100.0
	경남	64		6.3	7.8	12.5	7.8	12.5	25.0	14.1	14.1		100.0
	제주	12			16.7	33.3	8.3	25.0			8.3	8.3	100.0
거주 권역	수도권	516	1.7	10.9	13.2	26.6	10.7	14.3	7.8	9.3	5.2	0.4	100.0
	충청권	98	1.0	4.1	17.3	15.3	13.3	17.3	12.2	8.2	9.2	2.0	100.0
	호남권	95	1.1	9.5	18.9	17.9	7.4	13.7	9.5	12.6	9.5		100.0
	영남권	251		5.2	12.0	19.1	10.8	15.5	11.2	11.2	14.3	0.8	100.0
	강원·제주권	40			12.5	27.5	10.0	20.0	7.5	7.5	10.0	5.0	100.0

나. 측정지표별 가중치 결정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공단의 기획재정부 경영성과평가에 대응하여 경영목표 및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지표인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과가 아닌 지역별 균형발전에 기초한 성과를 단일 지수로 측정·산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체육균형발전지수는 학문적 연구나 과학적으로 정리된 용어가 아니라 지역별 체육균형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편의상 붙여진 실천적 용어이다.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측정·산출하는데 투입되는 지표 역시 공단의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경영성과 평가지표인 시설확충, 스포츠강좌이용권, 지도자배치, 국민체력인증 등 4개이다. 향후 체육진흥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입지표 및 산출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출된 체육균형발전지수는 지역별·유형별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며, 정부의 정책목표인 생활체육참여율과 삶의 질(행복도)을 고려하여 지역별 균형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지역별, 사업유형별, 대상별 등 기금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지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우선 시설확충, 스포츠강좌이용권, 지도자배치, 국민체력인증 등 4개의 투입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해야 한다. 투입지표의 가중치 결정은 AHP를 활용하였다.

AHP는 의사결정자가 목표의 달성 및 판단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운데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용한 의사결정 기법으로서 Saaty가 1980년에 제시한 방법이다. AHP는 1980년에 Saaty가 제시한 이후 기업, 정부 및 비영리조직에서의 장기계획수립, 포트폴리오 선택, 마케팅 의사결정, 효익/비용 분석 및

최적 자원배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재무, 생산, 마케팅 및 회계 등 경영학 각 분야에서 기존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논리적이며 이해가 용이한 의사결정기법으로서의 AHP는 다속성 평가에 있어서 문제의 기본 요소들을 찾아내어 계층적으로 구조화하는 계층구조원리, 구조화된 계층구조 하에서 판단의 종합화에 의산 우선순위(가중치 혹은 중요도) 결정 그리고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 일관성원리 등 세 가지 적용원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

AHP는 문제의 단순화 및 종합화라는 단계를 통해 자연스런 의사결정과정을 촉진시켜줌으로써 복잡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집단 의사결정을 위한 효과적인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판단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준다.

1) AHP의 적용절차

AHP는 문제의 기본요소를 찾아 구조를 체계화하는 분해원칙, 비율척도를 이용하여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쌍대비교 하는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비교 판단원칙, 마지막으로 평가대상별 복합 우선순위를 추정하기 위해 계층간의 비중을 합산하는 우선순위의 종합원칙 등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AHP의 적용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과 기준이 설정되면 AHP의 적용을 위한 설문을 개발한다. 평가자들은 쌍대비교 대상의 평가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9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표 III-13> 중요도의 크기에 대한 응답 척도

중요도	정의
1	동일한 정도로 중요(equally important)
3	하나가 다른 하나에 약간 더 중요(weakly more important)
5	매우 중요(strongly more important)
7	명백히 중요(demonstrably more important)
9	절대적으로 중요(absolutely more important)
2, 4, 6, 8	인접한 중요도에서 중간 평점(intermediate values between the two adjacent judgments)
역수	만약 평가기준 i가 평가기준 j에 대해 0이 아닌 중요도를 가진다면, j와 i에 대한 중요도는 위의 i의 j에 대한 중요도의 역수가 된다.

평가기준별 쌍대비교에 있어서 평가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각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게 된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매트릭스 형태로 요약되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각각의 행과 열은 평가기준 각각을 나타낸다.

나) 매트릭스에서의 각 요소는 상대기준과 비교된 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며(1-9까지의 점수를 부여), 자신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동일한 중요도를 갖게 되어(1로 표시되게 되는데) 매트릭스 내에서 대각선(diagonal)에 위치한다.

다) 매트릭스 내에서 비대각선(non-diagonal)에 위치한 요소들은 상대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값이다. 예를 들면, a_{12} 와 a_{21} 의 쌍대비교에 있어 요소의 가치가 (5, 1)이면 요소가치의 역은 (1, 5)인 것이다. 즉, a_{12} 와 a_{21} 의 쌍대비교에서 요소의 값이 (5, 1)로 평가되었다면 a_{12} 는 a_{21} 에 대해 5만큼 중요하며 반대로 a_{21} 은 a_{12} 보다 1/5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 이러한 판단은 모두 $(n-1) \times (n/2)$ 의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매트릭스는 응답자의 수만큼 작성된다(즉, 응답자가 50명이면 50개의 매트릭스가 작성된다) 전체 평가기준에 있어서 각각의 평가기준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매트릭스(응답자의 수만큼 작성된 매트릭스)를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취합한다.

마) 바)번째 단계를 통해 하나의 매트릭스를 작성하며 이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각각의 평가기준이 가지는 선호벡터인 고유 값(eigenvalues)을 계산하여 고유값의 크기에 의해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결정한다.

2) 판단의 일관성 검증

AHP에 있어서 판단의 일관성(consistency) 측정은 AHP 이용의 장점인 동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즉, 계층의 구조화, 쌍대비교에 의한 판단, 그리고 판단 내용의 종합에 의한 우선순위(가중치)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걸쳐 순위를 결정하는 AHP는 의사결정자의 판단의 일관성을 항상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는 일종의 장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관성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결정요소들 간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관성의 결여는 의사결정자가 자신에게 제시된 결정요인들 상호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결정요인들의 비교에 있어서 상대적 중요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과를 오렌지보다 2배 더 선호하고 오렌지를 바나나보다 3배 더 선호한 상태에서 완벽한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사과를 바나나보다 $6(=2 \times 3)$ 배 더 선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의 시간, 계절 및 기타 환경에 따라 이 선호는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AHP 절차상 쌍대비교에 의한 기준 평가에서 응답자가 갖는 판단의

일관성 문제를 Saaty(1990)는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 CR)로 측정하여 다루었다. 일관성비율 계산의 기초개념인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 CI)는 일관성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I = \frac{\lambda_{\max} - n}{n - 1}$$

여기서 n은 결정요인의 수이며 $\lambda_{\max}$ 는 최대 eigenvalue를 의미한다.

상기 식에 따르면 완벽한 일관성을 가질 때 즉, $\lambda_{\max} = n$ 일 경우 일관성지수는 0이 된다. CI의 계산이 이루어지면 의사결정자의 판단의 일관성을 결정하게 되는 일관성비율(CR)은 CI를 평균일관성지수(average consistency index : ACI)로 나누어 계산된다. 일관성비율(CR)은 0.1이하일 때 판단의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체육균형발전지수 투입지표 가중치 결정

체육학계 교수, 연구자, 정부 및 단체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체육균형발전지수 투입지표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가중치 설정에 대한 기본개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투입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쌍대비교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시설확충, 바우처지원, 지도자배치, 국민체력인증 등 투입지표들은 그동안 무수히 많이 분석되고 논의되었던 내용들이라 비교적 쉽게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AHP에 의한 가중치 산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III-14>과 같다. 일관성지수는 모두 0.1이하로 나타나 답변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표 III-14> 체육균형발전지수 제안체계, 지표군 및 측정방법

대분류	중분류	PI	중요도	일관성지수
양적지표 : 생활체육 활동	1. 시설확충	시설면적(1인당)	0.20	0.009
	2. 바우처	지원비율(대상자 대비)	0.23	0.030
	3. 지도자배치	지도자배치(1인당)	0.42	0.005
	4. 국민체력인증	체력인증 측정인원(1인당)	0.15	0.001
질적지표 : 생활체육참여율 및 삶의 질(만족도)	생활체육참여율	각 시도별 생활체육참여율/ 정부 생활체육참여율 목표		
	삶의 질(만족도)	각 시도별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행복도 점수/생활체육을 통한 삶의 질(행복도) 목표		

체육 분야 전문가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금지원사업 중 지도자배치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42). 다음으로 바우처사업(0.23)과 시설확충사업(0.20)이 유사한 가중치를 보였으며, 국민체력인증사업(0.15) 순으로 나타났다. 지도자배치사업과 국민체력인증사업 간에는 약 2.8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바우처사업 및 시설확충사업과도 약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설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으로써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하고자 하는 양적 성장 중심에서 바우처(스포츠강좌이용권)를 통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체육활동 지원과 올바른 운동방법을 알려주고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운동을 지원하는 지도자배치사업 등 질적 내실화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전문가들의 인식 및 기대와는 달리 지도자 배치를 통한 체육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은 아직 현장에서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도자 배치를 통한 체육활동행복도(상관관계 0.262, $p<0.327$), 생활체육참여율(상관계수

0.294, $p<0.270$)은 정(+)의 방향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삶의 질(행복도) 결과는 평균 73.63점으로 일반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삶에 대한 행복 및 만족도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체육활동 참여자들의 행복도를 UN에서 조사한 국가별 국민행복도 지수와 비교할 때 8위(스웨덴, 73.6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이 발표한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5.835점으로 58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35위)과 일본(53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복지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8.35점으로 1위인 덴마크 75.26과는 16.91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활체육참여에 따른 삶의 질(행복도)을 직접적으로 측정·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삶의 질(행복도)을 측정한 후 체육활동이 전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정도(기여도)를 파악하고 이를 삶의 질(행복도)에 곱해줌으로써 체육활동에 따른 삶의 질(행복도)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복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도 평균 행복도가 73.63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삶의 질(행복도) 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행복도를 도출하기 위해 체육활동참여가 전체 삶의 질(행복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그 기여도를 파악하고 이를 전체 삶의 질(행복도)에 곱해줌으로써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행복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5> 시도별 삶의 질(행복도) 및 체육활동 행복도

지역	순위			행복도 (점)	체육활동 가중치	체육활동 행복도 (점)	생활체육참 여율(%)
	삶의 질 (행복도)	체육활동 행복도	생활체육 참여율				
서울	14	15	9	67.60	38.20	25.82	55.30
부산	15	5	10	67.00	48.08	32.21	52.00
대구	9	3	8	74.00	48.54	35.92	56.80
인천	10	9	12	72.10	43.42	31.31	51.10
광주	3	13	6	78.40	40.69	31.90	59.80
대전	12	16	2	70.00	36.00	25.20	66.00
울산	13	11	14	68.80	42.08	28.95	49.70
경기	16	14	7	66.40	38.95	25.86	57.10
강원	5	4	15	76.80	48.57	37.30	47.10
충북	4	1	4	78.30	54.67	42.81	62.00
충남	8	7	1	74.30	43.95	32.65	66.80
전북	11	12	3	72.00	41.52	29.89	62.30
전남	7	6	5	75.80	44.09	33.42	60.90
경북	2	10	11	79.10	43.06	34.06	51.20
경남	6	2	13	76.20	52.11	39.71	50.20
제주	1	8	16	81.30	43.75	35.57	46.70
평균				73.63	44.23	32.66	55.94

* 체육활동 가중치는 체육활동 참여가 삶의 질(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정도(예, 10%, 15%, 20% 등)와 해당 영향별 응답자비율을 곱한 수치임

<표 Ⅲ-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삶의 질(행복도) 평균은 73.63점이며, 체육활동 참여가 삶의 질(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4.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육활동을 통해 얻는 행복도는 대략 31.26점으로 분석된다. 삶의 질(행복도)이 제일 높은 곳은 제주도로 81.30점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경북(79.10점), 광주(78.40점), 충북(78.30점), 강원(76.80점) 순이었다. 반면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 67.60점, 부산 67.00점, 경기 66.40점 순으로 하위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행복도)은 충북이 54.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 51.46점, 대구 48.59점, 강원 48.58점, 부산 47.91점 순이었다. 전체 삶의 질(행복도)과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행복도 차이가 큰 시도는 부산(삶의 질 15위, 체육활동행복도 5위), 대구(삶의 질 9위, 체육활동행복도 3위), 광주(삶의 질 3위, 체육활동행복도 13위), 경북(삶의 질 2위, 체육활동행복도 10위), 제주(삶의 질 1위, 체육활동행복도 8위)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삶의 질(행복도)과 체육활동행복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상관계수 0.730, $p<0.001$)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보다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삶의 질(행복도)과 체육활동행복도가 같은 방향성을 갖지만, 분석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전체 시도를 삶의 질 순위와 체육활동행복도 모두 높은 시도(I 그룹), 삶의 질 순위와 체육활동행복도 모두 낮은 시도(II 그룹), 삶의 질 순위는 높는데 체육활동행복도는 낮은 시도(III 그룹), 삶의 질 순위는 낮는데 체육활동행복도 순위는 낮은 시도(IV 그룹) 등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체육활동 참여와 관련해서 III그룹과 IV그룹이 의미가 있는데, III그룹의 경우 체육활동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IV그룹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정확하게 평가 및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및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타 시도와의 상대적 균형발전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참여정도와 삶의 질(행복도), 체육활동행복도는 각각 0.205($p<0.000$), 0.271($p<0.000$)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체육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및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삶의 질(행복도)과 체육활동행복도와 기금지원사업 주요 변인인 1인당시설면적, 바우처지원비율, 지도자배치, 체력증정인원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 III-16>와 같다.

<표 Ⅲ-16> 삶의 질(행복도)과 체육활동행복도, 기금지원사업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삶의 질(행복도)	체육활동행복도
1인당시설면적	0.065(0.811)	0.129(0.633)
바우처지원비율	0.431(0.096)	0.576(0.020)
지도자배치	0.392(0.133)	0.147(0.587)
체력측정인원	0.539(0.031)	0.334(0.205)

〈표 Ⅲ-1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행복도는 체력측정인원(0.539, $p<0.031$)과 그리고 체육활동행복도는 바우처지원비율(0.576 $p<0.020$)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분석결과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기금지원 사업과 달리 바우처(스포츠강좌이용권)와 체력측정(국민체력100)은 간접지원 방식이 아니라 공단의 직접사업으로 계획, 실행 및 피드백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도) 및 체육활동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서 다양한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즐기는 계층의 경우 전체 삶의 질(행복도) 대비 체육활동 참여가 삶의 질(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바우처(스포츠강좌이용권)나 국민체력100사업 등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들의 경우 삶의 질(행복도)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상으로 지원되는 바우처 및 국민체력100사업이 삶의 질 증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육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전액이 되었는지 또는 매칭펀드의 방식을 취하든지에 관계없이 단순히 기금만을 지원하는 간접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환경 및 체육활동 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단순히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인프라 성격의 요인들만 가지고는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의 지역, 대상, 규모, 유형 등을 기초로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 유형별로 간접지원 방식 또는 직접지원 및 관리 방식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최적의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배분 및 활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체육균형발전지수 산출 범위

우리나라에서 지역은 행정단위로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공동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지방자치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지역의 개념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민선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국가 속의 지역이 아닌 독자적인 주체로서 지역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실체에 적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체육균형발전지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말 현재 한국은 17개의 광역시도와 253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관심대상 지역은 일차적으로는 253개의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실제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체육환경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안을 제시하되 연구의 목적과 실제 실행상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제2안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자료수집, 정책 및 지원의 일관성 등을 감안할 때 세종시는 분석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초로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도록 한다.

제1안	: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53개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설정
제2안	: 16개(제주특별자치도 포함)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설정
제3안	: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을 분석단위로 설정
제4안	: 6개 특별시·광역시를 분석단위로 설정
제5안	: 9개 도를 분석단위로 설정

3) 시도별 투입지표 측정 결과

가) 시설확충지원사업

각 종 자료를 기초로 앞에서 결정한 체육균형발전지수 모형을 적용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체육균형발전지수 산출을 위해 시도별 투입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 Ⅲ-17>은 시도별 시설확충(1인당 시설면적)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표 Ⅲ-17> 시도별 시설확충(1인당 시설면적) 현황

지역	순위				시설면적 (1인당)
	삶의 질 (행복도)	체육활동 행복도	생활체육 참여율	시설면적	
서울	14	15	9	16	1.28
부산	15	5	10	15	1.38
대구	9	3	8	13	1.44
인천	10	9	12	10	2.55
광주	3	13	6	12	1.52
대전	12	16	2	14	1.42
울산	13	11	14	11	2.49

지역	순위				시설면적 (1인당)
	삶의 질 (행복도)	체육활동 행복도	생활체육 참여율	시설면적	
경기	16	14	7	9	3.19
강원	5	4	15	2	6.88
충북	4	1	4	5	4.53
충남	8	7	1	8	3.45
전북	11	12	3	3	5.83
전남	7	6	5	1	8.51
경북	2	10	11	7	3.51
경남	6	2	13	4	4.55
제주	1	8	16	6	4.50
평균					3.56

시설확충(1인당 시설면적)과 체육활동행복도 간에는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정(+)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기제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지역별, 소득별로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 및 레저활동의 유형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단순히 체육시설 확충만으로 참여율이나 행복도를 증대시키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설과 관련하여 중장기 목표를 수립할 때, 단순히 일정 수준의 1인당 시설면적만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필요 시설의 유형, 유형별 면적, 활용정도, 체육시설 구성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6개 시도의 1인당 시설면적은 평균 3.56m²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확충 중장기 계획에 의한 1인당 시설면적 목표는 5.7m²로 약 62.5%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저는 서울로 1.28m², 부산 1.38m², 대전 1.42m²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56m² 이상인 시도는 6개로서 전남 8.51m², 강원

6.88m², 전북 5.83m², 경남 4.55m², 충북 4.53m², 제주 4.50m²로 나타났다. 여전히 평균 이하의 시도가 10개로 나타났으며, 최저 수준인 서울, 부산, 대전 등은 절대적인 시설면적이 적다기보다는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설면적이 낮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의 생활체육참여율은 평균 57.3%로 전체 시도 평균 5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경우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체육활동의 중요성 내지는 체육시설 활용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체육참여율도 높다는 분석결과와 부합한다. 2015 월평균 가구소득(400만원) 기준 평균이하 집단은 53.5%, 평균이상 집단은 59.2%가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생활체육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단순히 양적인 참여율 비교이며, 생활체육참여의 질적 수준까지 고려하면 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별 저비용 스포츠 활동(걷기, 산책, 맨손체조 등)과 고비용 스포츠 활동(등산, 헬스, 수영, 골프 등) 참여비율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주로 걷기와 산책과 같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저비용 스포츠 활동을,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저비용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등산, 헬스, 수영, 골프 등 비용이 수반되는 스포츠 활동 또는 초고비용의 레저스포츠도 동시에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월평균 가구소득(400만원) 기준 평균이하 집단은 저비용 스포츠 활동이 8.89%, 고비용 스포츠 활동이 2.43%로 상대적으로 저비용 스포츠 활동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평균이상 집단은 저비용 스포츠 활동이 4.7%, 고비용 스포츠 활동이 4.2%로 저비용 스포츠 활동과 고비용 스포츠 활동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활동을 즐기므로써 체육활동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바우처(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시도별 바우처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바우처지원은 체육참여행복도와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상관관계 0.621, $p<0.010$). 이는 바우처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바우처지원을 통해 원하는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감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우처지원사업과 생활체육참여율 간에는 낮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상관계수 0.103, $p<0.706$).

<표 Ⅲ-18> 시도별 바우처 지원 현황

지역	순위				바우처지원 (지원대상 대비) %
	삶의 질 (행복도)	체육활동 행복도	생활체육 참여율	바우처지원	
서울	14	15	9	15	48.29
부산	15	5	10	11	56.80
대구	9	3	8	14	49.23
인천	10	9	12	13	50.01
광주	3	13	6	16	44.93
대전	12	16	2	9	59.00
울산	13	11	14	7	61.05
경기	16	14	7	12	54.08
강원	5	4	15	3	70.85
충북	4	1	4	1	86.99
충남	8	7	1	4	68.83
전북	11	12	3	10	56.92
전남	7	6	5	2	74.92
경북	2	10	11	8	59.45
경남	6	2	13	6	64.84
제주	1	8	16	5	66.44
평균					60.79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우처지원사업은 충북(86.99%), 전남(74.92%), 강원(70.85%), 충남(68.8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시도는 광주(44.93%), 서울(48.29%), 대구(49.23%), 인천(50.01%) 순으로 나타났다.

다) 지도자배치 지원사업

시도별 지도자배치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Ⅲ-19>와 같다. 지도자 배치는 체육참여행복도 및 생활체육참여율과 정(+)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상관관계 0.262, 0.294, $p<0.327$, 0.270). 지도자 배치 사업은 올바른 운동방법을 알려주고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운동을 지원하는 지도자배치사업 등 질적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체육전문가들은 지도자 배치가 체육활동 참여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도자 배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실제 지도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지도자 배치를 늘려갈 경우 생활체육 참여율 및 참여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19> 시도별 지도자 배치 현황

지역	순위				지도자배치 (인구10,000명당)
	삶의 질 (행복도)	체육활동 행복도	생활체육 참여율	지도자배치	
서울	14	15	9	13	0.32
부산	15	5	10	14	0.30
대구	9	3	8	12	0.39
인천	10	9	12	15	0.28
광주	3	13	6	10	0.46
대전	12	16	2	5	0.79
울산	13	11	14	8	0.62
경기	16	14	7	16	0.21
강원	5	4	15	1	1.07

지역	순위				지도자배치 (인구10,000명당)
	삶의 질 (행복도)	체육활동 행복도	생활체육 참여율	지도자배치	
충북	4	1	4	4	0.83
충남	8	7	1	7	0.72
전북	11	12	3	3	0.99
전남	7	6	5	2	1.05
경북	2	10	11	6	0.75
경남	6	2	13	11	0.44
제주	1	8	16	9	0.47
평균					0.6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도자배치사업은 강원(1.07명), 전남(1.05명), 전북(0.99명), 충북(0.8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시도는 경기(0.21명), 인천(0.28명), 부산(0.30명), 서울(0.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배치는 시설면적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지도자 배치 규모뿐만 아니라 시도별 인구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은 시도의 경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향후 해당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이러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라) 국민체력인증 사업

시도별 국민체력인증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Ⅲ-20>과 같다. 국민체력인증 사업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직접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성별, 연령 대별로 적합한 측정기준을 만들고 체력측정 결과 높은 수준의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금, 은, 동 의 체력인증 및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정확한 진단과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운동처방을 내려줌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III-20> 시도별 국민체력인증 현황

지역	순위				국민체력인증 (인구10,000명당)
	삶의 질 (행복도)	체육활동 행복도	생활체육 참여율	국민체력인증	
서울	14	15	9	10	22.14
부산	15	5	10	5	44.13
대구	9	3	8	11	20.87
인천	10	9	12	13	14.63
광주	3	13	6	8	29.98
대전	12	16	2	6	33.69
경기	16	14	7	15	6.62
강원	5	4	15	3	60.01
충북	4	1	4	4	59.63
충남	8	7	1	12	20.49
전북	11	12	3	9	25.62
전남	7	6	5	1	70.01
경북	2	10	11	7	30.50
경남	6	2	13	14	13.41
제주	1	8	16	2	62.64
평균					34.29

국민체력인증사업은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중에 본 사업의 성격, 운영 가능성, 전문인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체력인증과 진단, 처방이를 통한 체력증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력측정인원을 기초로 국민들의 삶의 질(행복도)과 체육활동행복도 간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국민체력인증사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행복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관계수 0.539, $p<0.031$). 이는 자신의 정확한 체력 상태를 알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적합한 운동 종목, 강도, 시간 등을 과학적으로 선택 및 관리할 수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체력측정 참여자들이 평상시에 꾸준하게 운동을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주변 친구 및 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체력점수에 대한 만족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체력인증 인원은 전남(70.01)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62.64), 강원(60.01), 충북(59.63), 부산(44.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20.49), 인천(14.63), 경남(13.41), 경기(6.62)가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의 투입지표별 순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Ⅲ-21>와 같다.

<표 Ⅲ-21> 시도별 투입지표별 순위

지역	투입지표별 순위						
	삶의 질 (행복도)	체육활동 행복도	생활체육 참여율	시설면적	바우처 지원	지도자 배치	국민체력 인증
서울	14	15	9	16	15	13	10
부산	15	5	10	15	11	14	5
대구	9	3	8	13	14	12	11
인천	10	9	12	10	13	15	13
광주	3	13	6	12	16	10	8
대전	12	16	2	14	9	5	6
경기	16	14	7	11	7	8	15
강원	5	4	15	9	12	16	3
충북	4	1	4	2	3	1	4
충남	8	7	1	5	1	4	12
전북	11	12	3	8	4	7	9
전남	7	6	5	3	10	3	1
경북	2	10	11	1	2	2	7
경남	6	2	13	7	8	6	14
제주	1	8	16	4	6	11	2

참고로 소득별 여가시간, 소득별 생활체육참여 실태, 소득별 저비용 스포츠 활동과 고비용 스포츠 활동 비교 결과는 다음 <표 Ⅲ-22>, <표 Ⅲ-23>,

〈표 Ⅲ-24〉와 같다.

<표 Ⅲ-22> 소득별 여가시간

소득수준	평균 (분)	비고
100만원 미만	327.19	-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500만원까지는 여가시간과 소득은 반비례 - 2015 월평균 가구소득(400만원) 기준 평균이하 집단의 여가시간과 평균이상 집단의 여가시간은 각각 219.27분, 169.92분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평균여가시간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이는 가구소득 100만원 주변 집단은 파트타임 직업이나 무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100-150만원	265.06	
151-200만원	215.49	
201-250만원	202.22	
251-300만원	183.64	
301-350만원	175.86	- 600만원 이상(170.40분)과 100만원 미만(327.19분)의 경우 156.69분의 여가시간 차이를 보임 * 체육활동 미참여 이유가 시간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소득(경제적 여건)에 기초한 심리적 여가시간으로 풀이됨. 따라서 절대적 여가시간이 아닌 소득수준을 고려한 생활체육 참여환경 조성 및 제약요인 제거가 참여율 제고의 정책방향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됨
351-400만원	165.43	
401-450만원	164.78	
451-500만원	169.28	
501-550만원	172.77	
551-600만원	172.38	
601만원 이상	170.40	

<표 Ⅲ-23> 소득별 생활체육참여 실태

소득수준	참여율 (주1회 이상)	비고
100만원 미만	43.4%	- 소득별 생활체육참여율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체육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 월평균 가구소득(400만원) 기준 평균이하 집단은 53.5%, 평균이상 집단은 59.2%가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생활체육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음(이는 단순히 양적인 참여율 비교이며, 생활체육참여의 질적수준까지 고려하면 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판단됨)
100-150만원	53.5%	
151-200만원	51.0%	
201-250만원	54.8%	
251-300만원	55.0%	
301-350만원	56.2%	
351-400만원	60.4%	
401-450만원	56.9%	

<표 Ⅲ-24> 소득별 저비용 스포츠 활동과 고비용 스포츠 활동 비교

소득수준	저비용 스포츠 활동	고비용 스포츠 활동	비고
100만원미만	13.6%	1.3%	- 소득별 저비용 스포츠활동(걷기, 산책, 맨손체조 등)과 고비용 스포츠활동(등산, 헬스, 수영, 골프 등) 참여비율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주로 걷기와 산책과 같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저비용 스포츠활동을,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저비용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등산, 헬스, 수영, 골프 등 비용이 수반되는 스포츠활동 또는 초고비용의 레저 스포츠도 동시에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 월평균 가구소득(400만원) 기준 평균이하 집단은 저비용 스포츠활동이 8.89%, 고비용스포츠 활동이 2.43%로 상대적으로 저비용 스포츠활동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평균이상 집단은 저비용 스포츠활동이 4.7%, 고비용스포츠활동이 4.2%로 저비용 스포츠활동과 고비용 스포츠활동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활동을 즐기므로써 체육 활동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체육 활동을 즐기고 있음을 시사함
100-150만원	14.1%	1.7%	
151-200만원	9.2%	2.0%	
201-250만원	7.3%	2.3%	
251-300만원	6.5%	2.4%	
301-350만원	5.6%	2.8%	
351-400만원	5.9%	4.5%	
401-450만원	5.2%	3.9%	
451-500만원	4.7%	4.5%	
501-550만원	5.1%	5.3%	
551-600만원	3.8%	7.3%	
601만원이상	5.0%	7.2%	

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경우 1% 미만(0.9%)인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2.2%로 나타나 역시 소득(경제적 여건)이 체육활동 참여 및 관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체육균형발전지수 산출

이상의 16개 시도별 측정된 투입지표를 기초로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Ⅲ-25>과 같다.

<표 Ⅲ-25> 체육균형발전지수(KSBI)

구분			지니계수	전환점수 (1-지니계수)*100	가중치	KSBI
분야	기금지원	성과지표				
생활체육	시설확충	시설면적(1인당)	0,6132	38,7	0,20	7,74
	바우처	지원비율	0,3550	48,8	0,23	11,22
	지도자배치	지도자배치(1인당)	0,5043	55,0	0,42	23,10
	국민체력인증	체력측정인원(1인당)	0,5477	41,1	0,15	6,17
	체육균형발전지수(KSBI)					48,23

체육균형발전지수(KSBI)는 시설확충(시설면적), 바우처(지원비율), 지도자배치(지도자배치인원), 국민체력인증(체력측정인원) 등 공단의 주요 생활체육진흥 기금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시도별 불균형 정도를 도출하고 여기에 질적지표인 생활체육참여율과 체육활동참여를 통한 행복도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가중하여 산출하였다.

체육균형발전지수(KSBI) = (1-지니계수) × 100

= 1 - {[사업별 시도별 측정값 × 생활체육참여율 목표대비 달성도 × 체육활동참여행복도] × 100} × 사업별 가중치

단, 생활체육참여율 목표 대비 달성도 : 각 시도별 생활체육참여율/ 정부 생활체육참여율 목표

체육활동참여 행복도 : 각 시도별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행복도) 점수/생활체육을 통한 삶의 질(행복도) 목표

생활체육참여율 목표 대비 달성도와 체육활동참여 행복도 가중치를 사용한 이유는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할 때 기본적으로 지니계수가 절대값의 불균형 정도만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절대 수치가

낮더라도 시도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면(불균형이 적으면) 지니계수는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균형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 사업의 성과는 낮지만 시도별로 균형만 달성되면 체육균형발전지수의 수치가 높게 나오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러한 하향평준화 위험뿐만 아니라, 반대로 시도별로 사업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지만 상대적으로 편차가 커서 균형이 낮아지면 체육균형발전지수는 낮아지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따라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금지원 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들의 생활체육참여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삶의 질(행복도)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이를 질적지표로 반영함으로써 시도별로 균형을 달성하되, 생활체육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진정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육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라. 시사점 및 활용방안

2015년도 기준의 투입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 시도별 균형도는 지도자 배치 55.0, 바우처지원비율 48.8, 국민체력인증 41.1, 시설면적 3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배치 사업과 공단의 직접사업 중 바우처 지원이 지역별 불균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균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획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도자배치, 국민체력인증, 시설면적 등은 50점 아래로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체육균형발전지수(KSBI)는 48.23으로 OECD 국가별 행복지수 58.35(5,835), 58위(157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국의 평균이 74.13(7,413)인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 측정지표, 방법, 대상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육균형발

전지수를 세계행복지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2013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있어서 지역별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국민문화지수 분석결과에서도 지역별로 지역문화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육 및 문화 정책이 문화참여율, 체육활동참여율 등 전국을 단위로 정해진 목표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의 체육, 관광, 문화 관련 정책목표는 지역별 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체육균형발전지수의 점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행복지수, 건강도시지수, 문화향유지수, 환경지수, 지역별균형발전지수 등 여러 국내외 지수 역시 측정대상, 투입지표, 산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 지표로 사용하기도 어렵다. 체육균형발전지수는 공단,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관리지표로서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체육균형발전지수의 절대적 크기를 가지고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시도별 및 시계열별 체육균형발전지수의 변화, 투입지표의 변화, 기금지원 규모, 대상지역, 사업유형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행복도) 증대를 위한 준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시설, 바우처, 지도자, 국민체력인증 등 투입지표별로 불균형이 심한 지역은 어디 인지, 그것이 생활체육참여율과 삶의 질(행복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등을 분석하여 기금지원 사업의 유형, 규모, 지역 등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후 년도에 해당 사업의 성과가 개선이 되었는지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 및 검토하고 환류 함으로써 기금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기금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 수립된 정책목표(수준)와 현재 달성정도(수준)와의 차이가 큰 지역을 찾아내어 어떤 유형의 기금지원(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스포츠과학에 기반한 트레이닝이 가능하도록 역학, 심리학, 생리학 등의 지원)이 효과적인지, 기금지원의 지역별·유형별 우선순위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체육활동 환경과 체육활동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단일수치로 표현하는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영역별 장단점을 고려하고, 증가하고 있는 기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지원 사업의 지역별·유형별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한정적인 기금재원의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삶의 질(행복도) 평균은 73.63점이며, 체육활동 참여가 삶의 질(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4.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육활동을 통해 얻는 행복도는 대략 31.26점으로 분석된다. 삶의 질(행복도)이 제일 높은 곳은 제주도로 81.30점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경북(79.10점), 광주(78.40점), 충북(78.30점), 강원(76.80점) 순이었다. 반면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 67.60점, 부산 67.00점, 경기 66.40점 순으로 하위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행복도)은 충북이 54.64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경남 51.46점, 대구 48.59점, 강원 48.58점, 부산 47.91점 순이었다. 전체 삶의 질(행복도)과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행복도 차이가 큰 시도는 부산(삶의 질 15위, 체육활동행복도 5위), 대구(삶의 질 9위, 체육활동행복도 3위), 광주(삶의 질 3위, 체육활동행복도 13위), 경북(삶의 질 2위, 체육활동행복도 10위), 제주(삶의 질 1위, 체육활동행복도 8위)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삶의 질(행복도)과 체육활동행복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상관계수 0.730, $p < 0.001$)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보다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행복도는 체력측정인원(0.539, $p < 0.031$)과 그리고 체육활동행복도는 바우처지원비율(0.576 $p < 0.020$)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금지원 사업과 달리 바우처(스포츠강좌이용권)와 체력측정(국민체력100)은 간접지원 방식이 아니라 공단의 직접사업으로 계획, 실행 및 피드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행복도) 및 체육활동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서 다양한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즐기는 계층의 경우 전체 삶의 질(행복도) 대비 체육활동 참여가 삶의 질(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바우처(스포츠강좌이용권)나 국민체력100사업 등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들의 경우 삶의 질(행복도)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상으로 지원되는 바우처 및 국민체력100사업이 삶의 질 증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육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전액이 되었든지 또는 매칭펀드의 방식을 취하든지에 관계없이 단순히 기금만을 지원하는 간접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시설확충(1인당 시설면적)과 체육활동행복도 간에는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정(+)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기제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지역별, 소득별로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 및 레저활동의 유형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단순히 체육시설 확충만으로 참여율이나 행복도를 증대시키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설과 관련하여 중장기 목표를 수립할 때, 단순히 일정 수준의 1인당 시설면적만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필요 시설의 유형, 유형별 면적, 활용정도, 체육시설 구성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 배치는 체육참여행복도 및 생활체육참여율과 정(+)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상관관계 0.262, 0.294, $p < 0.327$, 0.270). 지도자 배치 사업은 올바른 운동방법을 알려주고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운동을 지원하는 지도자배치사업 등 질적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다. 체육전문가들은 지도자 배치가 체육활동 참여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지도자 배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실제 지도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지도자 배치를 늘려갈 경우 생활체육 참여율 및 참여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체력측정 인원을 기초로 국민들의 삶의 질(행복도)과 체육활동행복도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국민체력인증사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행복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상관계수 0.539, $p < 0.031$). 이는 자신의 정확한 체력 상태를 알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적합한 운동 종목, 강도, 시간 등을 과학적으로 선택 및 관리할 수 있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체력측정 참여자들이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을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주변 친구 및 지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체력점수에 대한 만족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도 기준의 투입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 시도별 균형도는 바우처 지원비율 64.50, 지도자배치 49.57, 국민체력인증 45.23, 시설면적 38.68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공단의 직접사업 중 바우처지원이 지역별 불균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균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획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도자배치, 국민체력인증, 시설면적 등은 50점 아래로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2015년도 기준 체육균형발전지수(KSBI)는 50.17로 OECD 국가별 행복지수 58.35(5.835), 58위(157개국)와 유사한 점수대를 보이고 있다. 상위 10개국의 평균이 74.13(7.413)인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다. 측정지표, 방법, 대상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세계행복지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2. 제언

환경 및 체육활동 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단순히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인프라 성격의 요인들만 가지고는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정부 정책 및 지원사업의 지역, 대상, 규모, 유형 등을 기초로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금지원사업 의사결정을 위해서 지역별, 사업유형별 불균형 정도 및 정책목표 달성 여부, 궁극적으로 삶의 질(행복도) 증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지원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실행여부와 결과 및 성과를 환류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체육 발전 정도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각 지역의 강·약점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강점을 특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체계적인 생활체육 진흥 기금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진흥 관련 사업 실행 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대적 열위지역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각종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에 분야별로 체육균형발전지수와 같은 다양한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산하기관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때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부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육균형발전지수가 지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실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육균형발전지수 생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체육균형발전지수가 정책수립 및 실행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체육균형발전지수의 생산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주기적·지속적인 지표조사 체계 구축

체육균형발전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이후 이를 근거로 한 지표체계가 구축되면, 지표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즉, 지속적으로 체육균형발전지수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 및 자료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균형발전지수와 관련된 기존 통계자료가 정비되어야 하며, 미흡한 자료나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사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연구 수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별로 협력 조사 기구를 상설하여 조사원의 공급 및 훈련, 질문지 배포 및 수합, 조사 실시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교육통계센터에서는 추수조사가 필요한 종단연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각 지역 센터에 들어서 필요한 조사와 검사에 쉽게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은 전국적인 조사원 조직망을 구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기준년도 대비 증감률의 반영

향후 체육균형발전지수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준년도 대비 증감률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준년도 대비 증감률 반영은 매년 지역의 경쟁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금까지의 조사, 연구 그리고 각종 평가들이 시계열 비교라는 측면에서는 그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년도 대비 증감률의 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책적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비교 결과 및 순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그 의미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가치는 매우 높다.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 체계 확립

정책의 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체육균형발전지수 홍보 및 인센티브 마련도 요구된다. 체육균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

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지자체 포상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금지원 시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줌으로써 지자체 예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업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지원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체육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강화시킴으로써 체육균형발전 지수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체육균형발전지수 자문위원회 구축 및 운영

지속적인 체육균형발전지수 개발을 위해 관련 정책담당자, 학계 전문가, 지자체 사업 담당자 등 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체육균형발전지수의 타당성, 적시성, 실용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체육균형발전지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지표와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표개발의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화 외(1997). “교육지표 개발 및 주기적 교육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란(2001).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방식에 기초한 균형생활지표 개발”. 통계청.
- 김현호(2007).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정책”. 「국가균형발전의 이론과 실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김해동 외(2001). “인적자원개발지표 및 지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 영(2003). “BSC개념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지표 간 인과관계”. 회계저널, 26(2).
- 박용범(2006). “스포츠도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정보테크놀로지연구, 제1권 제1호.
- 박현신(2006). “서비스 스탠다드의 개관과 적용사례 : 관세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이상수(2000). “지방공공서비스의 조직운영 형태별 성과평가 : 지방공공의료기관의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이원(2010). 콘텐츠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지수 개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 이종연(2013). 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장재홍·김동수·박경·정준호(2008).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위상과 구조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산업연구원.
- 정영근(2003). “환경지속성지수(ESI) 추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39.
- 정영근배현희(2003). “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따른 국내 통계 발전 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정영근이준(200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지우석(2013).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한승준, 최진수(2001). “우리나라 낙후지역 선정의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35(4).
- 교통안전공단(1998). “교통문화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교통안전공단.
- 체육과학연구원(각연도). “한국의 체육지표”. 체육과학연구원.
- 통계청(각연도). 한국의 사회지표.
- Bell, Simon & Stephen Morse(2003). "Measuring Sustainability : Learning from Doing, Earthscan.
- Bossel, Hartmut(1999).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heory, Method, Applications. A Report to the Balaton Group.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IISD).
- Brown, K. & Coulter, P. B.(1983).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 of Police Service Deli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1).
- Bulchholz, Rogene A.(1991).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the Good Society : From Economic to Ecology - Factors which Influence Corporate Policy Decision". Business Horizons, 34(4). pp. 19-31.
- Krugman, Paul(1994). "Competitiveness : A Dangere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73(2).
- Worthen, B., Sanders, J. & Fitzpatrick, J.(1997). Program Evaluation : Alternative Approach and Practical Guidelines, NY : Longman Publishers.
- IMD(2008).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IMD.
- IPS(2008).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s. IPS.
- WEF(2008).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부록 1〉 문체부 기금지원사업(국민체육센터 건립) 세부 평가항목

【일반.인구50만】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정 량 평 가 (70)	지역 여건 (25)	재정자립도	5
		기존 체육시설 현황	5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현황	10
		접근성	5
	사업관리충실도 (15) 신설	기존 사업 정산률(신규)	8
		부진사업비율(신규)	7
	사업추진 준비성 (30)	부지 확보 여부	10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5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토지이용 여건	10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의회 협의여부)	5
정 성 평 가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의지 (20)	시급성 및 필요성	5
		시설 규모의 적정성 및 완공 후 활용계획의 타당성	10
		재원투자 계획 및 사업추진 의지	5
	국가발전 기여도 (10)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5
		균형발전 기여도	5

평가지표 세부내용

1) 재정자립도(5)

지표정의	재정자립도 평가를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 평가
적용기준	「e-나라지표」 안전행정부 등록 지표 2015년도 값 적용

《배점기준》

척 도	0%이상 ~ 20%미만	20%이상 ~ 50%미만	50%이상 ~ 100%
배 점	5	4	3

2) 기존체육시설 현황(5)

지표정의	유사(공공)체육시설 수 평가를 통해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 측정
적용기준	유사시설 : 「2015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말 기준) 자료 중 체육관, 수영장애 한함(학교 체육관 제외)

《배점기준》

척 도	1위	2~3위	4~5위	6~7위	8위 이하
배 점	5	4	3	2	1

3)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 현황(10)

지표정의	배후지 인구규모 측정을 통해 당해 지역 내 부지입지의 적정성 평가
적용기준	- 사업부지가 입지한 읍면동 인구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기준) ○○1동, ○○2동 ~ 등의 경우 전체가 아닌 해당 동 인구수 적용

《배점기준》

척 도	상위 20%이내	상위 20%초과~ 40% 이내	상위40%초과~ 60%이내	상위 60%초과~ 80%이내	상위80% 초과
배 점	10	9	8	7	6

4) 접근성(5)

지표정의	배후지 인구규모 측정을 통한 부지입지의 적정성 평가
적용기준	- 서비스반경 내 인구규모 적용 - 기준점↔서비스 반경 2km이내 인구 : GIS 분석을 통해 인구센서스 집계구 인구수 적용

《배점기준》

배 후 지 인구규모 = 2km(체육관 서비스 반경) 이내 배후 인구 수

※ 체육관 서비스 반경 설정 근거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2014)

척 도	1위	2위	3위	4위 이하
배 점	5	4	3	2

지표정의	배후지 인구규모 측정을 통한 부지입지의 적정성 평가
적용기준	• 중력모형 적용 • 기준점↔부지와의 거리 : 읍면동 사무소와 부지 간 직선거리

《배점기준》

배 후 지 인구규모 =
$$\left[\frac{\text{읍면동 인구규모}}{(\text{기준점} \leftrightarrow \text{부지와의 거리})^2} + \dots + \frac{\text{읍면동 인구규모}}{(\text{기준점} \leftrightarrow \text{부지와의 거리})^2} \right] \div \text{관할 읍면동수}$$

척 도	1위	2위	3위	4위 이하
배 점	5	4	3	2

5) 사업정산률(8)

지표정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시도별 정산률 (사업개소수 및 지원 금액 반영)
적용기준	• 국민체육센터, 개방형체육관, 지특이관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로 미정산 사업이 포함된 연도부터 기산하여 정산률 계산 • 산출방식 : 정산률 = 금액기준 정산률*50% + 개소수 기준 정산률*50%

《배점기준》

척 도	95%이내	90%이내	80%이내	70%이내	60%이내	60%미만
배 점	8	7	6	5	4	3

6) 부진사업비율(7)

지표정의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의 시도별 부진사업 비율(사업개소수 및 지원 금액 반영)
적용기준	• 최근 10년간 지원한 국민체육센터의 시도별 지원 개소 및 금액 대비 시도별 부진사업* 비율 • 산출방식 : 금액기준 부진사업비율*1/2 + 개소수 기준 부진사업비율*1/2 * 부진사업 : 사업기간(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대상 확정 통보 일로부터 3년) 종료 후 미완공 사업

《배점기준》

척 도	5%이내	10%이내	15%이내	20%이내	25%이내	30%이내	30%미만
배 점	7	6	5	4	3	2	1

7) 부지 확보 여부(10)

지표정의	부지확보 여부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의 신속성 측정
적용기준	• 신청서 제출일 기준 토지소유주가 지자체 일 것 • 국유지 또는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 등 공공기관 소유부지의 경우 사용승인을 득할 것

《배점기준》

척 도	확보	50% 이상 확보	미 확보
배 점	10	8	6

8)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5)

지표정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준비성 평가
적용기준	• 신청서 제출일 기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가 적정의견이거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조건부일 것 • 심사대상이 아닐 경우 완료한 것으로 간주

《배점기준》

척 도	완료	심사신청	미심사
배 점	5	3	1

9)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토지이용 여건(10)

지표정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또는 부지용도 확인을 통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준비성 평가
적용기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도시관리계획 상 사업부지가 체육시설설치 용도구역으로 정해져 있거나 토지이용계획원 상 용도구역이 체육시설 설치 가능할 것

《배점기준》

척 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체육시설 설치 가능 용도구역	용도구역 변경 필요
배 점	10	8	6

10)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5)

지표정의	지자체 주민들의 기금사업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등 평가
적용기준	지자체 주민의견 수렴 실적 제출 및 의회 협의 실적

《배점기준》

척 도	의회협의 및 수렴 완료 (4건 이상)	수렴 완료 (3건 이상)	수렴 중 (1~2건)	미수렴
배 점	5	4	3	1

11) 시급성 및 필요성(5)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시급성 평가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 목적 달성 가능성 평가
적용기준	시설필요성, 시설시급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5	4	3	2	1

12) (시설) 규모의 적정성 및 완공 후 활용계획의 타당성(10)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가능성 및 완공 후 활용계획의 타당성 평가
적용기준	인구규모 대비 시설규모 및 시설구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	8	6	4	2

13) 자원투자 계획 및 사업추진 의지(5)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자원투자 확보 계획을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가능성 평가
적용기준	사업 규모에 대한 자원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5	4	3	2	1

14)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5)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평가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가능성 평가 (권장연면적 준수, 문화시설 설치, 장애인시설 설치, 어린이시설 설치, 육아여성시설 설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등)
적용기준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의 국가 기여도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5	4	3	2

15) 균형발전 기여도(5)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균형발전 기여도 평가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가능성 평가
적용기준	지역체육 기여도 등 체육 발전에 대한 국가 기여도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5	4	3	2

【장애인형】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정 량 평 가 (70)	지역 여건 (25)	재정자립도	5
		기존 체육시설 현황	5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현황	10
		접근성	5
	사업관리충실도 (15) 신설	기존 사업 정산률(신규)	8
		부진사업비율(신규)	7
	사업추진 준비성 (30)	부지 확보 여부	10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5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토지이용 여건	10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의회 협의여부)	5
정 성 평 가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의지 (20)	시급성 및 필요성	5
		시설 규모의 적정성 및 완공후 활용계획의 타당성	10
		재원투자 계획 및 사업추진 의지	5
	국가발전 기여도 (10)	장애인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 부합성	5
		균형발전 기여도	5

평가지표 세부내용

1) 재정자립도(5)

지표정의	재정자립도 평가를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 평가
적용기준	「e-나라지표」 안전행정부 등록 지표 2015년도 값 적용

《배점기준》

척 도	0%이상 ~ 20%미만	20%이상 ~ 50%미만	50%이상 ~ 100%
배 점	5	4	3

2) 기존체육시설 현황(5)

지표정의	유사(공공)체육시설 수 평가를 통해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 측정
적용기준	유사시설 : 「2015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말 기준) 자료 중 체육관, 수영장애 한함(학교 체육관 제외)

《배점기준》

척 도	1위	2~3위	4~5위	6~7위	8위 이하
배 점	5	4	3	2	1

3)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 현황(10)

지표정의	배후지 인구규모 측정을 통해 당해 지역 내 부지입지의 적정성 평가
적용기준	사업부지가 입지한 읍면동 인구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기준) ·○○1동, ○○2동 ~ 등의 경우 전체가 아닌 해당 동 인구수 적용

《배점기준》

척 도	상위 20%이내	상위 20%초과~ 40% 이내	상위40%초과~ 60%이내	상위 60%초과~ 80%이내	상위80% 초과
배 점	10	9	8	7	6

4) 접근성(5)

지표정의	배후지 인구규모 측정을 통한 부지입지의 적정성 평가
적용기준	• 서비스반경내 인구규모 적용 • 기준점→서비스 반경 2km이내 인구 : GIS 분석을 통해 인구센서스 집계구 인구수 적용

《배점기준》

배 후 지 인구규모 = 2km(체육관 서비스 반경) 이내 배후 인구 수

※ 체육관 서비스 반경 설정 근거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2014)

척 도	1위	2위	3위	4위 이하
배 점	5	4	3	2

5) 사업정산률(8)

지표정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시도별 정산률(사업개소수 및 지원 금액 반영)
적용기준	국민체육센터, 개방형체육관, 지특이관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로 미정산 사업이 포함된 연도부터 기산하여 정산률 계산 • 산출방식 : 정산률 = 금액기준 정산률*50% + 개소수 기준 정산률*50%

《배점기준》

척 도	95%이내	90%이내	80%이내	70%이내	60%이내	60%미만
배 점	8	7	6	5	4	3

6) 부진사업비율(7)

지표정의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의 시도별 부진사업 비율(사업개소수 및 지원 금액 반영)
적용기준	최근 10년간 지원한 국민체육센터의 시도별 지원 개소 및 금액 대비 시도별 부진사업x비율 • 산출방식 : 금액기준 부진사업비율*1/2 + 개소수 기준 부진사업비율*1/2 * 부진사업 : 사업기간(문화체육관광광부의 지원대상 확정 통보 일로부터 3년) 종료 후 미완공 사업

《배점기준》

척 도	5%이내	10%이내	15%이내	20%이내	25%이내	30%이내	30%미만
배 점	7	6	5	4	3	2	1

7) 부지 확보 여부(10)

지표정의	부지확보 여부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의 신속성 측정
적용기준	• 신청서 제출일 기준 토지소유주가 지자체 일 것 • 국유지 또는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 등 공공기관 소유부지의 경우 사용승인을 득할 것

《배점기준》

척 도	확보	50% 이상 확보	미확보
배 점	10	8	6

8)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5)

지표정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준비성 평가
적용기준	• 신청서 제출일 기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가 적정의견이거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조건부일 것 • 심사대상이 아닐 경우 완료한 것으로 간주

《배점기준》

척 도	완료	심사신청	미심사
배 점	5	3	1

9)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토지이용 여건(10)

지표정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또는 부지용도 확인을 통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준비성 평가
적용기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도시관리계획 상 사업부지가 체육시설설치 용도구역으로 정해져 있거나 토지이용계획원 상 용도구역이 체육시설 설치 가능할 것

《배점기준》

척 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체육시설 설치 가능 용도구역	용도구역 변경 필요
배 점	10	8	6

10)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5)

지표정의	지자체 주민들의 기금사업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등 평가
적용기준	지자체 주민의견 수렴 실적 제출 및 의회 협의 실적

《배점기준》

척 도	의회협의 및 수렴 완료 (4건 이상)	수렴 완료 (3건 이상)	수렴 중 (1~2건)	미수렴
배 점	5	4	3	1

11) 시급성 및 필요성(4)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시급성 평가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 목적 달성 가능성 평가
적용기준	시설필요성, 시설시급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4	3	2	1

12) (시설) 규모의 적정성 및 완공 후 활용계획의 타당성(10)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가능성 및 완공 후 활용계획의 타당성 평가
적용기준	인구규모 대비 시설규모 및 시설구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	8	6	4	2

13) 자원투자 계획 및 사업추진의지(5)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자원투자 확보 계획을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가능성 평가
적용기준	사업 규모에 대한 재원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4	3	2	1

14) 장애인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 부합성(10)

지표정의	장애인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화된 자체 계획 수립 및 달성여부 평가 (접근성, 특화시설, 편의시설, 운영프로그램, 전문인력 등)
적용기준	장애인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	8	6	4	3

15) 균형발전 기여도(5)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균형발전 기여도 평가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가능성 평가
적용기준	지역체육 기여도 등 체육 발전에 대한 국가 기여도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4	3	2	1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세부 평가항목(안)】

평가지표별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정량평가 (70)	지역 여건 (25)	재정 자립도	5
		기금 지원 실적	5
		기존체육시설 현황	5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	10
	사업관리충실도 및 시설 활성화 (25)	기존사업정산률(신규)	10
		체육관 주민이용 활성화 실적(신규)	8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 추진실적	7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	10
	사업추진 준비성 (20)	운영방안 및 개방이용 규정 수립 여부	5
		지자체 및 교육청 협의실적	5
정성평가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의지 (20)	시급성 및 필요성	5
		시설 규모의 적정성 및 완공 후 활용계획의 타당성	10
		재원투자 계획 및 사업추진 의지	5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5
	국가발전 기여도 (10)	균형발전 기여도	5

평가지표 세부내용

1) 재정자립도(5)

지표정의	재정자립도 평가를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 평가
적용기준	「e-나라지표」 안전행정부 등록 지표 2015년도 값 적용

《배점기준》

척 도	0%이상 ~ 20%미만	20%이상 ~ 50%미만	50%이상 ~ 100%
배 점	5	4	3

2) 기 지원 실적(5)

지표정의	지자체의 기금지원 실적 조사를 통해 지역 간 기금지원 균형 평가
적용기준	「공단의 '00년 ~ '15년까지 기금지원 실적 자료 기준」 •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배점기준》

척 도	1위~2위	3~4위	5위 이하
배 점	5	4	3

3) 기존 체육시설 현황(5)

지표정의	유사(공공)체육시설 수 평가를 통해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 측정
적용기준	• 유사시설 : 「2015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말 기준) 자료 중 생활체육관 기준」

《배점기준》

척 도	1~2위	3~5위	6위 이하
배 점	5	4	3

4)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10)

지표정의	사업부지 인구 측정을 통해 당해 지역 내 부지입지의 적정성 평가
적용기준	사업부지가 입지한 읍·면·동 인구수(국가통계포털 자료기준) · 〇〇1동, 〇〇2동 ~ 등의 경우 전체가 아닌 해당 동 인구수 적용

《배점기준》

척 도	상위 20%이내	상위 20%초과~ 40% 이내	상위40%초과~ 60%이내	상위 60%초과~ 80%이내	상위80% 초과
배 점	10	9	8	7	6

5) 사업정산률(10)

지표정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시도별 정산률(사업개소수 및 지원 금액 반영)
적용기준	국민체육센터, 개방형체육관, 지특이관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로 미정산 사업이 포함된 연도부터 기산하여 정산률 계산 • 산출방식 : 정산률 = 금액기준 정산률*50% + 개소수 기준 정산률 50%

《배점기준》

척 도	95%이내	90%이내	80%이내	70%이내	60%이내	60%미만
배 점	8	7	6	5	4	3

6) 체육관 주민 이용활성화 실적(8)

지표정의	개방형다목적학교체육관 시도별 지역주민 이용실적
적용기준	최근 1년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으로 활용한 실적 * 사용 연인원을 1주 평균 사용 인원으로 환산 * 적용실적 :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이용실태점검('15.10, 완공 105개교 대상) 결과

《배점기준》

척 도	300명 이상	200명 이상	100명 이상	50명 이상	50명 미만
배 점	7	6	5	4	3

7)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실적(7)

지표정의	국민생활체육회의 학교체육개방지원사업 시도별 추진 실적
적용기준	학교 체육개방지원사업 참여 학교 수 / 해당시도 시군구 수(%) * 2015년도말 기준

《배점기준》

척 도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배 점	7	6	5	4	3

8) 예산 확보 현황 및 계획(10)

지표정의	예산확보 및 계획 여부확인을 통해 사업 준비성 평가
적용기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 '15년 예산 반영 여부 확인

《배점기준》

척 도	지자체 및 교육청 예산확보	지자체 또는 교육청 예산확보	예산 미확보
배 점	10	6	2

9) 운영방안 및 개방이용 규정 수립 여부(5)

지표정의	체육관 운영방안 및 개방이용 규정 수립의 준비를 통해 사업 준비성 평가
적용기준	학교(체육)시설 운영방안 및 개방이용 규정 수립 및 제출

《배점기준》

척 도	자체규정 수립	지자체·교육청 규정 준용	규정 미 수립
배 점	5	3	1

10) 지자체·교육청 협의 실적(5)

지표정의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사업 준비성 평가
적용기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실적 제출

《배점기준》

척 도	실적 제출(협의 완료)	실적 제출(협의중)	실적 없음
배 점	5	3	1

11) 시급성 및 필요성(5)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시급성 평가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가능성 평가
적용기준	필요성, 시급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5	4	3	2	1

12) (시설) 규모의 적정성 및 완공 후 활용계획의 타당성(10)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가능성 및 완공 후 활용계획의 타당성 평가
적용기준	인구규모 대비 시설규모 및 시설구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	8	6	4	2

13) 재원투자 계획 및 사업추진의지(5)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재원투자 확보 계획을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가능성 평가
적용기준	사업 규모에 대한 재원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5	4	3	2	1

14)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5)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평가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가능성 평가 (권장연면적 준수, 문화시설 설치, 장애인시설 설치, 어린이시설 설치, 육아여성시설 설치, 산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등)
적용기준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의 국가 기여도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5	4	3	2

15) 균형발전 기여도(5)

지표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균형발전 기여도 평가를 통해 기금지원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가능성 평가
적용기준	지역체육 기여도 등 체육 발전에 대한 국가 기여도 평가

《배점기준》

척 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5	4	3	2

【 2016년도 연구과제 목록 】

❖ 기본과제

* 현안과제 15건 포함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1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생활체육정책 방향과 과제	김미숙
2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심판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김미숙
3 기금지원 체육시설 이용실태 및 향후 추진방안	김미옥
4 민간자영업 체육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김미옥
5 스포츠 교육연수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연구	김미옥
6 엘리트-생활체육대회 통합운영 방안	성문정
7 체육균형발전지수(KSBI) 개발	송명규
8 부상 엘리트 선수를 위한 컨디셔닝 센터 체계화 방안	서태범
9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수요분석	김민수
10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김상훈
11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 개정방안 연구(비공개)	김대희
12 국가 체육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비공개)	성문정
13 국제체육교류진흥재단 설립 기본 타당성 연구(비공개)	조현주
14 장애인은퇴선수 취업실태 및 일자리 지원방안(비공개)	한태룡
15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현안과제)	김대희
16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산업진흥 표준조례」 제정안 연구(현안과제)	김대희
17 개발도상국 분쟁지역 청소년대상 스포츠프로그램(KISS-HOPE) 효과 검증(현안과제)	노용구
18 체육인재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현안과제)	조현주
19 하퇴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 전후의 주상골 하강과 족저압 비교 분석(현안과제)	박종철
20 원게이트 기기별 파워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통한 상호변환 추정식 개발(현안과제)	성봉주
21 유소년 야구선수들의 연령에 따른 체격, 체력, 골연령 관계성 연구(현안과제)	송홍선
22 엘리트 펜싱선수 손상실태 조사(현안과제)	정진욱
23 왕복달리기용 고정밀도 무선측정방법 개발(현안과제, 비공개)	길세기
24 세계빙상연맹(ISU) 기준에 따른 쇼트 트랙 빙상용 안전매트에 대한 무게 추 낙하 충격 시험(현안과제, 비공개)	이상철
25 적외선과 영상을 이용한 사격 조준선 정렬 훈련 장비 국산화 기초 연구(현안과제, 비공개)	이상철
26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 몸통호구 충격흡수 성능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현안과제, 비공개)	황중학

도 서 명	책 임 연 구 자
27 스포츠도시 육성사업 추진방안(현안과제, 비공개)	고경진
28 한국 체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현안과제, 비공개)	남상우
29 2015 한국의 체육지표(현안과제, 기배포)	정지명

❖ 수탁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 구 자
1 2015 대통령 국무총리기(배) 대회 평가 연구	김양례
2 2015 스포츠산업백서	김민수
3 2015 체육백서	노용구
4 2016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정현우
5 2016 리우올림픽 대비 체조 도마 종목 YANG Hak Seon 기술에 대한 최적화 방안 탐색	송주호
6 2016년 꿈나무선수 경기력 향상도 측정 평가	김광준
7 2016년 꿈나무선수 선발 측정평가	김광준
8 2016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평가	한태룡
9 2016년 리우올림픽 대비 맞잡기 특이적 훈련프로그램이 여자유도 주요선수들의 전문체력 및 상지근력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김태완
10 2016년 리우올림픽 대비 여자하키 주요경쟁국가 경기내용 분석 및 대응방안	박종철
11 2016년 리우올림픽을 위한 컨디션닝 지침서	민석기
12 경북CT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김상훈
13 국가대표 컬링팀을 위한 팀빌딩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김영숙
14 국민체력100 - 국민체력실태조사와 국민체력100 사업의 연계방안 보고서	박세정
15 국민체력100 - 한국성인 및 노인의 건강체력 기준제시	박세정
16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의 다원화 방안	유지곤
17 권총 및 소총 사격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합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방안 탐색	박상혁
18 동계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공기저항 3%이상 저감시키는 인체공학적 플랫폼 섬유 소재 및 프리미엄급 응용제품 개발(3차년도)	문영진
19 동계스포츠 종목 선수들의 심리적 모멘텀 요인 탐색(인지-정서-생리적 변화)	박상혁
20 리우올림픽대비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	최규정
21 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의 스타트타임 및 기록 향상 전략 수립	민석기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22 상임심판제도 운영	김대희
23 쇼트트랙 선수들의 근기능 강화 훈련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근력 및 근파워 비교 연구	김언호
24 수영운동시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방안 도출	박세정
25 수영운동인식기 성능 검증 및 운동지표 도출	민석기
26 스마트아령 운동기구 개발	황종학
27 스포츠 4대악 유형별 비리사례집 발간 연구 스포츠 경기력 향상 IoT 서비스 개발 컨설팅	김대희
28 제1세부 동계 빙상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아이스 챔버 구성	이상철
29 제2세부 루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IoT 박스 개발	길세기
30 제3세부 루지 경기력 향상을 위한 VR(Virtual Reality) 이미지 트레이닝의 활용 방법	황승현
31 제4세부 스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문 개발	박종철
32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운영 실태조사	고경진
33 스포츠안전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황종학
34 스포츠용품 인증기관 지정 도입 및 육성 방안	길세기
35 스포츠용품제조업 총조사	김상훈
36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종목 스타트 기술에 관한 연구 지원	송주호
37 승마형 운동기구(마렐고휘트니스)의 공학적 알고리즘 연구	황종학
38 승마형 운동기구(마렐고휘트니스)의 운동시 에너지소비량 및 운동효과 분석	성봉주
39 심박변이도를 활용한 봅슬레이/스켈레톤 선수들의 각성조절 호흡법 개발 및 적용	황승현
40 안전관리 우수체육시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유지곤
41 야외운동기구 설치 안전기준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황종학
42 양궁 리커브 선수들을 위한 리우 경기장 적응 시뮬레이션 훈련 개발 및 적용	김영숙
43 엘리트 선수 양성 시스템 개선 방안	정진욱
44 올림픽공원 올림픽 컨벤션센터 중장기 활용 방안	노용구
45 장애인스포츠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현우
46 전국 종합운동장 스포츠허브(가칭) 조성 모델개발	김미옥
47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모니터링 연구	노용구
48 제22기 경륜선수후보생의 경주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적용	서태범
49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심리평가 기준 개발	황승현
50 체력단련시설 운영 실태조사	정지명
51 체육시설 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성 및 안전교육 제도화 방안 수립	김미옥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52 초등학교 운동선수 체력 훈련지원 지침서(유소년용)	송홍선
53 초등학교선수용 스포츠과학센터 측정평가 도구 개발	성봉주
54 컬링 브러쉬 잡기 위치에 따른 효율적 스윙핑 기술 분석	김태완
55 태권도선수의 근기능 강화 체력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김언호
56 통합백서	김대희
57 펜싱 사브르 훈련용 반응시간 측정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길세기
58 프리스타일스키 공중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 분석	박종철
59 한국형 에이전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김대희
60 해외 올림픽레거시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점	조현주

【 2015년도 연구과제 목록 】

❖ 기본과제

* 현안과제 17건 포함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의 생활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김양례
2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방안	김미옥
3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조성방안	김미옥
4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등록규정 개선방안 연구	김대희
5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노용구
6 해외 스포츠정책 동향 분석	조현주
7 학교운동부의 학교급별 적정 운동시간 설정을 위한 연구	김언호
8 시장분석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방안 연구	김상훈
9 성과분석에 기반한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개선방안	김민수
10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대회 실태 및 개선방안(비공개)	김미숙
11 전국체육대회운영의 법제도적 개선방안(비공개)	한태룡
12 뉴로피드백을 활용한 심상 훈련의 적용(비공개)	김영숙
13 골프 유사회원권 시장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비공개)	정지명
14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현안과제)	김대희
15 스포츠도시 선정 평가지표 개발 연구(현안과제)	김미옥
16 일본 학교체육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현안과제)	한태룡
17 고강도 저항성운동과 저강도 저항성운동이 동맥경화도에 미치는 영향(현안과제)	김언호
18 2015년도 국민체력100 체력증진교실 체력 향상도 분석(현안과제)	박세정
19 투기 종목 선수들의 스포츠 용기 구성 개념 탐색(현안과제)	박상혁
20 스포츠심리 현장지원을 위한 심박변이도(HRV) 활용방안에 관한 문헌 연구(현안과제)	황승현
21 스포츠영상분석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현안과제)	박종철
22 아시아 수영선진국의 지원시스템 분석 및 비교(현안과제)	민석기
23 학교체육 거버넌스 운영조직 설립방안(현안과제, 비공개)	한태룡
24 개발도상국 청소년대상 스포츠 프로그램(KISS-HOPE)효과 검증(현안과제, 비공개)	노용구
25 국제무에센터(가칭) 건립 기본구상(안) 연구(현안과제, 비공개)	유지곤
26 3m 스프링보드 다이빙 109C형 기술 완성도 평가(현안과제, 비공개)	김태완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27 체조 도마 종목 Ri Se Gwang 기술에 관한 연구(현안과제, 비공개)	송주호
28 역도 인상 동작 시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상 관련요인 평가(현안과제)	문영진
29 한국스포츠개발원 체력 측정 및 평가 매뉴얼Ⅱ(현안과제, 내부용)	김영수
30 2014 한국의 체육지표(현안과제, 기배포)	정지명

❖ 수탁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1 2014 대통령기(배) 대회 평가	김양례
2 2014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평가	김권일
3 2014 상임심판제도 운영평가 연구	김대회
4 2014년 체육백서 발간 사업	김미숙
5 2014년도 꿈나무선수 경기력 향상도 측정평가	김광준
6 2015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김양례
7 2015 꿈나무선수 선발 측정평가	김광준
8 2015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	조현주
9 2015년 국민체력실태조사	성봉주
10 2015년 우수영재 육성사업 스포츠과학 측정의뢰	최규정
11 2015년도 꿈나무선수 경기력 향상도 측정평가	김광준
12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홍보측정과 전략관리	김민수
13 S Health의 운동 사용성 평가 및 개선	정진욱
14 S Health의 운동 서비스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정진욱
15 S Health의 운동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	정진욱
16 강릉 동계종목 선수훈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유지곤
17 국민체력100 - 대체항목 개발	정진욱
18 국민체력100 - 평가기준 개선	고병구
19 국민체력100 - 한국성인의 스포츠활동 평가 도구 개발	고병구
20 국민체력100 - 한국인 건강체력 기준개발(2차년도)	박세정
21 국민체력100사업과 건강증진사업 협업 및 차별화 전략 방안	김양례
22 국민체력100 - 스포츠활동 인증가이드북	송홍선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23 국제체육 아젠다 발굴 기획 사업	조현주
24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성문정
25 늘품체조 효과성 평가 분석	서태범
26 동계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공기저항 3%이상 저감시키는 인체공학적 플랫폼 섬유 소재 및 프리미엄급 응용제품 개발(2차년도)	문영진
27 부산경정사업 타당성 조사	유지곤
28 사용자 활동량 기술 개발	박세정
29 상임심판 제도 운영	김미숙
30 스포츠 4대약 유형별 비리사례집 발간 및 보급	김대희
31 스포츠무형자산가치 평가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정지명
32 스포츠산업 소비자 가계지출 조사	김상훈
33 장애인국제대회 연금지급방안 컨설팅 연구	김권일
34 종목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야구 부문)	김상훈
35 종목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축구 부문)	최용석
36 종목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농구 부문)	김민수
37 종목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배구 부문)	정지명
38 4대 스포츠 종목별 발전방안 연구(야구)	김상훈
39 4대 스포츠 종목별 발전방안 연구(축구)	최용석
40 4대 스포츠 종목별 발전방안 연구(농구)	김민수
41 4대 스포츠 종목별 발전방안 연구(배구)	정지명
42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유지곤
43 체육주간 및 체육의날 활성화를 위한 연구	노용구
44 통합DB구축 및 측정항목 개선-체육영재 및 중고 학생선수의 통합 관리를 위한 연계방안 연구	최규정
45 통합DB구축 및 측정항목 개선-체육영재 발굴프로그램	고병구

【 2014년도 연구과제 목록 】

❖ 기본과제

도 서 명	책 입 연구 자
1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 육성 방안 연구	김양례
2 특수학교 운동부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김권일
3 대학스포츠 발전방안	이용식
4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개발연구	노용구
5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II - 제도, 재정, 인력을 중심으로 -	김미숙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활용방안 연구	김권일
7 학습권 보장제의 운영실태 및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 최저학력제를 중심으로 -	한태룡
8 Recreation Handbook for Youth	노용구
9 대한민국체육유공자제도 운영방안 연구	김권일
10 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김미숙
11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선방안 연구	성문정
12 해외 스포츠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지(Newletter) 발간	노용구
13 학생체육 운영조직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한태룡
14 생활체육육성부문 기금지원의 사업효과성 분석	송명규
15 복합훈련 순서와 휴식시간이 근비대 및 유산소성 변인에 미치는 효과 - 분자생물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	서태범
16 연속적인 탈진 운동 후 overtraining 관련 타액 변인 조사 - 비침습적 실시간 분석 kit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서태범
17 뉴로피드백 시스템 개발과 현장 적용 효과 검증	김영숙
18 국가대표 중점지원 종목의 스포츠 손상 유발동작 탐색	김태완
19 비만 예방을 위한 한국 청소년 체력 기준치 설정	고병구
20 역도 인상동작시 손상관련 동작 및 신체관절부위에 대한 평가	문영진
21 도마 종목 신기술(손 잡고 옆 돌아 뒤 공중 돌며 1260도 비틀기) 완성도 향상을 위한 연구	송주호
22 2014 인천아시안게임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들을 위한 이완-인지재구성(MR-CR) 불안제어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효과	김용승

도 서 명	책 임 연 구 자
23 컬링 경기 시 스코어와 선·후공에 따른 작전유형 및 대응방안 Digital Media DB 구축	김태완
24 엘리트 스포츠지도자의 스포츠심리상담 요구 탐색 및 확인	김영숙
25 한국형 운동능력별 엘리트선수의 체력 SNP 비교	김광준
26 사격 선수의 유능성과 자기 조절초점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정서와 노력 행동의 예측	박상혁
27 쇼트트랙 선수들의 시합 수행 효능감 척도 개발	박상혁
28 Wingate test를 통한 엘리트선수들의 ACTN3 유전자 다형별 비교 및 훈련 프로그램의 기초자료 모색	민석기
29 한국 초중고 학생선수 훈련시간 국내외 실태조사	성봉주
30 국가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시스템 개선 연구	최규정
31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체조 안마, 링 종목 연기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송주호
32 건강운동관리사 실가기술시험 시행방안연구	정진욱
33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엘리트 필드하키 선수들의 포지션별 운동계적 및 대응방안 모색	민석기
34 한국인의 체력나이 추정식 개발	고병구
35 지역 스포츠과학센터 실질적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문영진
36 2013 한국의 체육지표	정지명

❖ 수탁과제

도 서 명	책 임 연 구 자
1 동계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공기저항 3%이상 저감시키는 인체공학적 플랫폼 섬유 소재 및 프리미엄급 응용제품 개발(1차년도)	문영진
2 2013년도 꿈나무선수 경기력 향상도 측정평가	김광준
3 휠체어농구 리그제 도입방안	김권일
4 S Health 보행운동인식 성능 검증에 대한 컨설팅 프로젝트	박세정
5 국민체력100 스포츠활동 평가기준 및 인증단계 개발	송홍선
6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모델개발	정진욱
7 국민체력100 노인기 효과 검증	박세정
8 국민체력100 한국인 건강체력 기준개발	박세정
9 2013 체육백서	김권일
10 2013 전국종목별연합회 성과평가	이용식
11 구미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수립	유지곤

도 서 명	책 임 연구자
12 2014년 꿈나무 선수 잠재력 측정평가	김광준
13 유아 운동발달 프로그램 지침서 개발	송홍선
14 2014년 스포츠산업경영정보조사 사업	정지명
15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한태룡
16 스포츠산업 무형자산가치 상용화 타당성 검토	정지명
17 스포츠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김상훈
18 인증기준 규격개발 로드맵 수립	길세기
19 스포츠용품규격개발(태권도 전자호구)	황종학
20 스포츠용품규격개발(빙상안전매트)	이상철
21 스포츠용품규격개발(체육도장 바닥매트)	이상철
22 스포츠용품규격개발(등산용스틱)	길세기
23 2014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김양례
24 제21기 경륜선수후보생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적용	서태범
25 2014년도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교육 사업	성문정
26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용품 신뢰성 검증을 위한 규격 연구	황종학
27 국민건강생활체조	정진욱
28 유형별 체육단체 법인화 방안 연구	김권일
29 종목별 취약점 분석 및 평가지표 개선	유의동
30 국제심판 양성방안 연구	김미숙
31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김미숙

한국스포츠개발원 정기간행물 안내

□ 스포츠과학

『스포츠과학』은 체육정책, 스포츠과학, 스포츠산업분야 등 최신 체육정보를 폭넓게 소개하는 체육전문잡지입니다.



- 발행월 및 배포 부수 : 2, 5, 8, 11월(계간), 800부
- 배포처 :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공공도서관 등
- 1년 구독료 : 20,000원(날권 : 6,000원)
- * 구독 신청 : 02-970-9570

□ 체육과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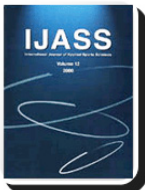
『체육과학연구』는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국내 최고의 체육종합학술지입니다.



- 발행월 및 배포 부수 : 3, 6, 9, 12월(계간), 500부
- 배포처 :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공공도서관 등
- 1년 구독료 : 30,000원(날권 : 10,000원)
- * 구독 신청 : 02-970-9570

□ IJASS

『IJASS』는 2016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체육종합 영문 학술지입니다.



- ※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ports Science
- 발행월 및 배포 부수 : 6, 12월(반년간), 800부
- 배포처 : 해외 체육관련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 1년 구독료 : 20,000원(날권 : 10,000원)
- * 구독 신청 : 02-970-9570

□ 스포슈머 리포트

스포츠슈머 리포트(Sposumer Report)는 소비자 설문조사, 품질시험, 해외시장 가격비교 등 스포츠용품 분야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호 텐트	(2013년 12월)
제2호 자전거	(2014년 04월)
제3호 골프	(2014년 09월)
제4호 아웃도어 재킷	(2014년 11월)
제5호 등산배낭	(2014년 12월)
제6호 자전거 용품	(2015년 05월)
제7호 라켓류	(2015년 06월)
제8호 캠핑용품	(2015년 08월)
제9호 야구 및 축구용품	(2015년 10월)
제10호 스키	(2015년 12월)
제11호 수영	(2016년 07월)
제12호 배드민턴	(2016년 12월)

* 스포슈머 리포트 웹진 <http://sposumer.spois.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posumer.spois>
 블로그 <http://blog.naver.com/sposumer2015>

□ SI포커스

SI포커스는 스포츠산업 동향에 대한 부문별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제1호 우리나라 가계의 스포츠 소비지출 현황분석	(2016년 1월)
제2호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2016년 2월)
제3호 당구 산업 동향과 향후 과제	(2016년 3월)
제4호 농구 및 배구 산업 실태조사 비교분석	(2016년 4월)
제5호 스포츠산업 가계지출 조사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가계의 스포츠용품 소비지출 현황	(2016년 5월)
제6호 국내 스포츠산업체 영업실태 비교분석	(2016년 6월)
제7호 국내 관람스포츠의 소비지출 현황분석	(2016년 7월)
제8호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내 스포츠산업 영향 분석	(2016년 8월)
제9호 4대(축구, 야구, 농구, 배구) 스포츠 산업 실태조사 비교분석	(2016년 9월)
제10호 국내외 일자리정책 현황	(2016년 10월)
제11호 골프장 유사회원권 현황 및 인식조사	(2016년 11월)
제12호 스포츠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교 분석	(2016년 12월)

* SI포커스 다운로드 <http://www.spois.or.kr/front/www/issue/list.do>

**체육균형발전지수(KSBI : KSPO Sport
Balanced-development Index) 개발**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

발행일 : 2017년 3월

발행처 : 한국스포츠개발원

0179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인쇄처 :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 02)325-1585

편집디자인 : (주)비전테크시스템즈 ☎ 02)3432-7132
